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인 쇄 2006년 12월 27일

발 행 2006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 조정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18)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86-6 93340 : ₩6000

309.111-KDC4

306.095193-DDC21

CIP2006002869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북한 문학에서의 현실 반영	9
1. 주체사실주의와 주체시대의 전형	11
2. 북한 문학에서의 '생활 묘사'	15
III. 생산 영역의 주민생활	19
1. 북한 문학에 나타난 경제난과 '자력갱생'의 대안	21
2. 일터의 상실과 생계 대안	32
IV. 재생산 영역의 주민생활	51
1.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생활 팽창	53
2. 가부장적 가정의 균열과 붕합	68

V. 사회적 관계 측면의 주민생활 .....	87
1. 계층의 분화와 이동 .....	89
2. 사회적 통제의 이완과 복원 .....	97
3. 세대의 계승과 혁신 .....	104
VI. 결 론 .....	111
참고문헌 .....	1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23

# I

## 서론





## 1. 연구 목적

1990년대의 경제난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생산, 재생산, 사회적 관계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변화의 흐름과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경제난이 초래한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곤궁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경제난은 해방 이후 50여년간 북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해왔던 사회주의적 생산과 분배의 방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으며 이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 맺기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명선이었던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었고 공장의 기계도 작동을 멈추었다. 주민들은 해방 이후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맨손으로 실험해보아야 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신해서 주민들의 삶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시장의 질서였다. 시장 질서의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주민들의 소비생활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시장 확대의 결과로 경제적 계층 구분이 심화되었다. 사회적 통제 체제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공식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실상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난 이후 북한의 소설과 새터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북한 주민생활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두 가지 사건은 ‘고난의 행군’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표되는 시장질서의 부분

적 인정 조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난의 행군’과 ‘7·1경제관리개선 조치’라는 두 가지 계기에 유의하여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을 전망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일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일상생활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헬러는 일상생활을 “개별인간의 재생산을 종합한 것을 나타내는 모든 행위”<sup>2</sup>라고 정의하였고, 하버마스는 “전략적 행위, 목적적 행위와 대비되는 상호주관적으로 유용한 행위규범이 형성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상황”<sup>3</sup>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을 노동, 가정생활, 여가의 총체로 보는 르페브르의 시각을 원용하여,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생산, 재생산, 사회적 관계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경제난 이후의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일상생활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사회적 실천과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산 영역에서는 경제난의 총체적 상황과 특히 공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변화를 알아보고, 경제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방식의 생계 대안을 모색했는지를 증점적으로 살펴본다. 재생산 영역에서는 특히

---

<sup>1</sup>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M. 마페졸리 외 저,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p. 31.

<sup>2</sup> 로라보본느, “의미의 추구인가 의미의 부정인가,” 위의 책, p. 141.

<sup>3</sup> 위의 글, p. 140.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해 나타난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생활의 팽창 양상을 살펴보고,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변화를 탐색한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경제난과 시장의 활성화가 초래한 계층 질서와 사회적 통제의 변화와 함께 세대간 갈등의 양상을 살펴본다.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는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이미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여러 지역에서 국가의 배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른다. 경제난은 1995년의 수해를 거쳐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을 공식 선언한 1996년경에 절정에 이른다. 북한 문학작품에 나타나있는 경제난 시기 주민들의 생활실상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던 ‘고난의 행군’과 그 이후의 경제난 극복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로 한 시기 북한 주민의 생활상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변화를 초래한 또 하나의 계기는 시장의 확대이다. 시장의 활성화와 이에 수반되는 소비생활의 팽창, 계층 분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나타난 변화는 7·1조치라는 정책의 시행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는 경제난 이후의 일련의 사회적 변화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7·1조치를 이끌어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난의 행군’과 7·1조치라는 두 계기를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상호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이 두가지 계기를 포함하는 시기에 북한 주

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간행된 소설을 비롯한 북한 문학작품 분석을 주로 활용한다. 문학작품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북한의 문학이 부분적으로 사회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서 문학의 현실 반영은 당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작품 속에 나타난 현실은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당의 문예정책이라는 프리즘을 거쳐 굴절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문학작품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적 영역이 당의 공식문서보다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sup>4</sup>

북한의 문학은 ‘주체시대’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 당과 수령에 충실한 인간 전형의 구현을 통해 주민을 교양·감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사실적 재현’이라는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특성 또한 견지하고 있다. 특히 소설은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서도 묘사를 기본”으로 한다.<sup>5</sup> 서사적 묘사방식이란 인간생활을 객관적인 형상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작가는 문학에 사용되는 형상수단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용하여 인간 성격과 생활을 객관적인 형상으로 폭넓고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굴절된 현실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수반된다면, 문학작품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주소를 읽어낼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로 활용가능하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생활 실태와 이에 대한 해석은 ‘고난의 행군’이 종료된 1990년대 말 이후의 문학 작품에 등장했다. 1999년에 발표된 김문창의 장편소설 『열망』 이후의 북한 소설에는 경제난과 경제

---

<sup>4</sup>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예술』 (서울: 역락, 2004), pp. 75~76.

<sup>5</sup>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9.

난이 초래한 주민생활의 변화들이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변창률의 “영근이삭”과 같은 소설에서는 7·1조치 이후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새로운 사회계층과 ‘실리추구형’의 새로운 인간형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북한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노귀남은 ‘예방적 변화’라 지칭하고 있다.<sup>6</sup> 이는 “자기의 본색을 감추고 대렬내에 잠입”하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사상적인 트로이목마”<sup>7</sup>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교훈과 계도를 통해 북한의 바깥 세계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북한 사회 변화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문학작품은 1990년대 이후 발간된 『조선문학』, 『청년문학』에 수록된 소설과 단행본 소설이다. 이 소설들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 현실과 ‘시대정신’, ‘전형’과 다양한 인간 군상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특히 소설 속에 나타난 ‘예외적 정상’과 ‘이례’(異例)의 발견을 통하여 북한 주민생활과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 미시사가 에도아르도 그렌디는 하층민의 사회적 현실은 “천 가지 상투적인 사료보다도” “단 한 장의 예외적인 문서를 통해서 훨씬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보았다.<sup>8</sup> 이는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례를 통해서 공식담론 뒤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문헌에서는 간헐적으로 가시화될 뿐인 사회적 긴장관계를 발견해낼 수

<sup>6</sup> 노귀남, “김정일 시대의 북한문학,” 김종희 편, 『북한 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p. 145.

<sup>7</sup> “트로이 목마,” 『조선문학』, 2000년 8호, p. 70.

<sup>8</sup> 위르겐 슐룸봄, “미시사-거시사,” 위르겐 슐룸봄 편·백승중 외 역, 『미시사와 거시사』 (서울: 궁리, 2001), p. 44.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공간 문헌상에서 ‘이레’의 발견이란 아래 단위의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이 위로부터의 인식을 통해 굴절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이레’가 곧 정상적 사회적 현상의 한 단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9</sup> 북한의 공식담론이나 문학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전형’ 또는 모범적인 인물은 실제 삶 속에서는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인물일 수 있으며, 오히려 문학작품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 인물 또는 교화대상으로 등장하는 ‘이레’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정상’적인 삶에 가까울 수 있다. 이 점에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문헌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터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경험 세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주관적 의미 맥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술자료는 문헌자료가 지니는 ‘위로부터의 시각’을 극복하고 행위자, 특히 공식적인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어 온 계층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폭과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지사례연구가 불가능한 북한 사회 연구에서 구술 자료는 문헌 자료가 갖는 시각의 일방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실제에 가깝게 복원해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구술자료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새터민 29명의 증언을 채록한 것이다. 새터민 구술자료는 출신 지역, 계층, 탈북 연도 등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증언한 새터민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표시하였다.

<sup>9</sup> 홍민, “북한의 공장과 노동세계: ‘아래로부터의 역사,’” 동국대학교대학원 편, 『대학원연구논집』 (2003).

# II

## 북한 문학에서의 현실 반영





## 1. 주체사실주의와 주체시대의 전형

북한의 공식적인 예술론은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의 문예관에 의하면 문학예술 작품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을 올바로 구현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주체의 문예관’이 맑스-레닌주의 문예관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의 이익의 견지에서 문학예술을 대하고 미의 본질을 밝히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의 본성을 고찰하는 혁신적인 관점과 견해”를 정립하였다고 말한다. 반면 맑스-레닌주의 문예관은 인간세계를 물질경제적 조건을 위주로 보고 그리며 역사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반영함으로써 문학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본다.<sup>10</sup> 이는 북한의 문예이론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 과정에서 레닌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양식으로 승인 받았으며, 1932년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결의안에 의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1934년 개최된 소비에트 작가동맹 대회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혁명적 발전의 현실을 진실하게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예술적 표현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을 사회주의 정신 속에서 근로대중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조, 교육하는 임무와 결부”시킨다.<sup>11</sup>

<sup>10</sup> 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실태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25.

<sup>11</sup> 이종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론과 실제,” 『슬라브연구』, 제3권(1987), p. 230.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의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된다. 첫째, 사회주의적 예술은 ‘진실’되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이다. 둘째,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을 의미한다. 셋째, 현실과 분리되지 않은 예술로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스스로 사회적 목표를 세우는 예술이다. 어느 것에 강조점이 두어지든 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 그 자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 현상 가운데 사회 발전의 모순을 반영하며, 사회의 구조와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sup>12</sup>

해방 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구축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형성하였다. 특히 전후복구기에는 부르주아 미학 사상의 잔재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통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정립해갔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의 반종파투쟁을 경유하면서 북한의 문학가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현실을 긍정하는 고정된 실체로만 받아들였을 뿐 리얼리즘이 갖는 비판적인 특성은 간과해 버렸다.<sup>13</sup>

이러한 경향은 1967년 제4기 15차 전원대회 이후 더욱 심화되어, 1972년에는 ‘주체적 문예사상’을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 문예사상’으로 규정하고 주체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문예이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주체사실주

<sup>12</sup> 전영선, “북한의 문예이론과 창작방법론,”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pp. 40~42.

<sup>13</sup> 김성수,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1999).

의'로 대체되었다.

그렇다면 주체사실주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문예이론은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공통성을 계급적 이념과 사실주의적 형상방법에서 찾고 있으며, 차이점을 시대적 요구와 철학적 기초, 사람에 대한 관점 등에 근거해서 규명하고 있다.<sup>14</sup>

주체의 문예이론에서 보면 이 시대는 주체시대이므로 현실에 대한 사실적 재현으로서 사실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풀고 해결해야 한다.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을 그려야 하는데, 주체시대의 전형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며, 그 중에서도 수령이다. 수령 이외의 인물 역시 주체시대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 당과 수령에 대해 충성을 다하며 이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인간으로 형상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주체사실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sup>15</sup>

또한 주체시대는 인민이 역사 발전의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핵심, 즉 인간이 역사와 사회의 주체이고 중심이라는 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제약되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지만, 주체사실주의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린다는 점에서

<sup>14</sup> 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실태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37.

<sup>15</sup>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전형이란 개별성을 통해서 보편적, 사회적 의의를 가진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일정한 계급·집단의 공통된 본질적 특성을 문학작품 속에서 개별화된 인물에 반영함으로써 시대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영선, “북한의 문예이론과 창작방법론,”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pp. 38~50.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주체사실주의는 구분된다고 본다.<sup>16</sup>

1990년대 들어와서 소설 속에서 1990년대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1990년대 북한 소설에서 인물 전형의 두 개의 키워드는 ‘대중적 영웅주의’와 ‘개성화’이다. 1990년에 발표된 다음과 같은 문학비평에는 이러한 방향성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90년대에 영화문학과 장중편소설분야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를 확대하여 오늘의 새 영웅을 그리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영웅을 그린 작품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인민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새로운 영웅을 형상한 작품인것이다. …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새 년대의 격동적인 력사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영웅들, 바로 이들이야말로 90년대를 대표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으로 될것이다. … 그런 영웅은 여러 류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류형은 《90년대속도》 창조운동의 선구자들이다. … 그러면 90년대 새로운 인간전형들의 성격적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그 특징은 무엇 보다먼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과 의지이다.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신념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에 대해서는 80년대문학에서도 강조해온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새로운 특질을 부각시키는 한편 충실성형상의 미학적질을 한계단 높이는것으로써 90년대 문학의 얼굴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버리자는 것을 호소하고 싶다.<sup>17</sup>

즉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되, 이전 시기 소설

<sup>16</sup>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02.

<sup>17</sup> 윤상현, “90년대 인간의 성격,” 『조선문학』, 1990년 7호, pp. 48~52.

과 같이 영웅과 대중,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복선적 갈등구조를 내재하고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지닌 다중적 인물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무조건 “무모하고 무지하며 저속한 속물”로 묘사하는 차원을 벗어나, 성격을 개성화하여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모를 인정함으로써 성격을 비교적 섬세하게 그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문학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8</sup>

## 2. 북한 문학에서의 ‘생활 묘사’

북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계획과 통제의 속성은 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 소설들이 게재된 『조선문학』은 “자주시대 문학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을 편집 기준이자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다. 『조선문학』은 당의 지도사상과 편집기준에 철저히 입각하여 편집되기 때문에,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작품이 실리지 못한다.<sup>19</sup> “간혹 황색잡초의 싹이 교묘하게 위장되어 지면에 돌아나는 경우에도 당의 지도밑에 전투적인 평론을 통하여 제때에 뿌리채 뽑아버”리고 있다.<sup>20</sup> 북한의 문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근간으로 하는 주체사실주의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창작되지만, 문학의 현실 반영은 당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sup>18</sup> 오양열,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pp. 103~104.

<sup>19</sup> 노귀남, “김정일 시대의 북한문학,” 『북한 문학의 이해 2』, p. 148

<sup>20</sup> 장형준, “《조선문학》과 나,” 『조선문학』, 1999년 7호, p. 48.

에 작품 속에 나타난 현실은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당의 문예정책이라는 프리즘을 거쳐 굴절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있는 것은, 북한의 문학작품이 “현실생활에 기초하고 생활을 반영”하는 것을 창작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 부분적이거나 주민들의 삶의 진실의 편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생활과 동떨어져서는 그 어떤 문학예술도 창조될 수 없으며 생활을 생동하게 담지 못한 예술은 아무런 가치도 못 가진다”고 본다. 문학작품에서 생활 묘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첫째, 인간 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묘사하는 것이고, 둘째, 표현과정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그린다는 것이다.<sup>21</sup> 문학작품에서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생활세부들이 잘 그려져야 하”며, 생활세부의 묘사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본다. 생활의 묘사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지만, “사실에 대한 기계적인 복사나 재현”이어서는 안되며 “작은 생활세부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천명해 내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sup>22</sup> 즉 문학작품은 생활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예술적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에서 비본질적인 것, 저속한 것을 가려내고 전형적인 것,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진실하게 살려내는 과정”<sup>23</sup>이다. 1990년대의 경제난을 다루는 문학작품이 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고난극복의 낙관적 태도와 신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비평은

<sup>21</sup>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 생활묘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9), pp. 5~6.

<sup>22</sup> 위의 책, pp. 122~123.

<sup>23</sup> 리현길 엮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8), p. 151.

북한 문학작품에서 생활 묘사가 생활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생활의 진실을 그린다고 하여 인간생활을 현상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그림에 있어서도 미래를 앞당겨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적미를 부각시키는데 귀착시켜 오늘의 일시적인 난관을 보여주어야지 난관 그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생활을 어둡게 그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부 작가들은 생활적 진실을 그린다는 미명하에 난관과 애로 그 자체만을 전면에 놓고 그대로 《서술》 함으로써 작품의 양상을 어둡게 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생활의 희열을 왜소화하여 보여주고 있다.<sup>24</sup>

따라서 문제는 북한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정치적 덧칠을 벗기고 내재해있는 “생활의 본색”을 찾아내느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각들을 어떻게 모자이크하여 사실에 가까운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그 이전의 틀에 박힌 주제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이 강조되고 있어,<sup>25</sup>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다가가는 길을 한걸음 가깝게 해주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모기장론의 강화와 같이 대외적인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문학예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주

---

<sup>24</sup>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조선문학』, 1999년 1호, p. 6.

<sup>25</sup>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p. 282.



가 확대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인민들의 문화적 선택의 폭을 수용 가능한 범주 안에서 다양화함으로써 체제내적인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sup>26</sup> 그만큼 주민들의 실생활세계에 대한 풍부한 묘사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례로 1990년대 말 이후의 소설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난과 사회상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전형과 주변인물을 통해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편법을 통한 생존, 의식의 편차 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개성적이고 발랄한 문체, 상징과 구성의 치밀함, 그리고 갈등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주체 이념의 획일성 너머에 존재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일상의 무늬를 포착함으로써 북한 현실을 진솔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소설도 등장하고 있다.<sup>27</sup> 뿐만 아니라 관료, 중간관리층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부패상에 대한 비판이나 이혼 문제, 가정폭력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과 TV 드라마도 등장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sup>26</sup>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예술』, p. 62.

<sup>27</sup> 고인환, “주체 이념과 일상적 삶의 무늬,” 『문학수첩』, 제1권 제4호(2003).

# III

## 생산 영역의 주민생활



## 1. 북한 문학에 나타난 경제난과 ‘자력갱생’의 대안

1990년대의 경제난은 북한 사회와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북한 소설에서 1990년대 경제난의 상황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이다. 1999년에 발표된 김문창의 장편소설 『열망』은 경제난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북한 소설에서는 최초로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시련과 난관”이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식량난과 산업 기반의 붕괴, “풀죽을 먹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묘사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발표된 소설에는 1990년대 이후,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북한에서 경제난이 시작된 것은 ‘고난의 행군기’에 앞선 199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 말부터 식량공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배급이 간헐적으로 중단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갈수록 배급이 정해진 날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나마 한달치 분량을 다 못 채우고 쌀 대신 잡곡을 주는 식으로 배급이 이어졌다(L1, 함북 청진 출신, 1999년 1월 탈북; C3, 함북 회령 출신, 2000년 10월 탈북). 1994년에서 1995년경에는 배급이 거의 중단되어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아사사태가 발생한 것도 1990년대 중반 경이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평양의 경우에는 경제난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심화되기 시작했다(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경제난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킨 것은 “끔찍이도 많은 비”가 “밤낮없이 퍼부은”<sup>28</sup> 1995년 여름의 대홍수였다. 실질적으로 배급 체계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으나, 소설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경제난의 시기는 1996년 ‘고난의 행군’ 선포 이후 몇 년간의 시기이다. 북한에서는 1996년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노동청년’ 공동사설에서 그해의 중요 목표와 기본사상으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는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였다. 경제난을 묘사하고 있는 1999년 이후의 북한소설은 대부분 1996년부터의 ‘고난의 행군기’를 배경으로 한다. 소설 『열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간접적이고 순화된 형태로 이 시기 주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전영범은 노동자들이 해친 점심그릇들을 돌아보았다. 흰쌀밥을 싸온 사람은 볼과 얼마 되지 않았다. 남새를 섞어지은 잡곡밥과 강냉이가루밥이었다. 범벅과 죽 같은것을 싸온 사람도 있었다.<sup>29</sup>

이후 2000년대 중반께 발표된 소설들에서는 경제난의 상황과 경제난이 생산 영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2004년에 발표된 김광남의 소설 “탄부의 보금자리”에서는 식량 ‘미공급’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 소설들 속에 나타난 경제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식량난을 겪고있던 때라 우리에게는 강낭콩과 강낭국수가 세상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반가운것이였다.<sup>30</sup>

<sup>28</sup> 리준길, “바쁜 사람,” 『조선문학』, 2005년 10호, p. 70.

<sup>29</sup>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 77.

《지금이 어느때니까. 동무네라고 식량공급이 별도로 되는건 아니지 않소?》 《압니다. 공장종업원들도 쌀공급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

자연재해로 상처입은 땅, 류실된 농토, 흰쌀이 보이지 않는 통강냉이밥 그릇들... 전기가 모자라 기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상점매대들에는 상품이 말라버리고있으며 공장의 설비들은 하나, 둘 녹슬어가고 있었다. 이미 나라의 중요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적연계가 끊어지고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이 원료난, 자재난으로 생산을 멈추거나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32**

특히 2002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강계정신』에서는 희천공장기계 공장을 배경으로 전력난과 자재난으로 공장이 멎고, 탄광이 침수되어 돌격대원이 ‘버럭’에서 수집탄을 채취하며, 공장의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굶어죽는 경제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부모를 잃고 떠도는 ‘꽃제비’들의 상황도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네댓명의 조무래기들이 몸에 맞지 않는 어른의 람루한 옷을 외투처럼 걸치고 어스름이 깃든 차도로 왈차지겔 떠들어 대면서 물러갔다. 앙상하게 여윈 목우의 박박 깎은 맨 머리, 석탄덩이처럼 새끼만 얼굴들이 승용차의 전조등불빛에 언뜻언뜻 비쳤다.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이 틀림 없었다.**33**

그런데 이 소설들 속에 그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견뎌내었는가 아니다. 이 소설들의

**30** 리희남,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조선문학』, 2004년 5호, p. 33.

**31** 리라순, “문수봉 기슭에서,” 『조선문학』, 2004년 12호, p. 15.

**32** 백보흠, 『라남의 열풍』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p. 248.

**33** 리신현, 『강계정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p. 19.

주제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난’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이고, 고난의 끝에 쟁취한 ‘승리’이다. “남새범법을 싸 들고 원족을 가야 하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 비할바 없이 가장 억세고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것”이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들이 현재의 고난을 미래를 일구기 위한 시련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4</sup>

고난의 행군기에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굶주림, 고통, 상실, 희생의 ‘오늘’은 문학작품 속에서는 ‘내일’의 승리를 위한 것으로 승화되고, 고통과 희생은 과거의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으로만 남게 된다. 이는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고말았을 난관과 시련”을 극복했다는 자신감과 ‘혁명적 낙관’의 표현이기도 하다.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과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2000년대에 이르러 북한 문학작품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도 고난의 현실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현실 극복의 동력으로서의 ‘자력갱생’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문학작품 속에 다음과 같이 다소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최악의 생사기로에서 민족이 영영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떨쳐 일어서느냐? 우리 인민은 질식되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의 전쟁을 치른것과 맞먹는 《고난의 행군》을 맞받아 뚫고 나갔으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어 결사전을 벌려 왔었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낸 이 나라의 구석구석엔 아직도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것이다.<sup>35</sup>

<sup>34</sup> 양해모, “결석대표,” 『조선문학』, 2000년 10호, p. 41.

<sup>35</sup> 리라순, “문수봉 기슭에서,” p. 16.

문학작품 속에서는 대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함께 “공화국을 말살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적붕쇄”<sup>36</sup>가 경제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즉 체제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안은 고통의 외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김정일의 영도역사를 작품화했다는 ‘불멸의 향도’ 총서 중의 하나인 백보흠의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은 고난의 행군기에 자재, 장비, 기술력 등 모든 것이 부족했던 상황속에서 국내 제작 경험이 없는 최첨단 특수정밀기계를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해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김정일이 라남탄광을 지도하면서 당비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 일꾼들이 말끝마다 미제의 고립압살책동과 자연재해로 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무 역시 그말이 입에 올랐구만, 허허허.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소? …지구온난화로 하여 이상기후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수 있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치지 않습니다. 동무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인민의 고생은 제국주의가 존재할 때까지 영원히 그치지 않고 <고난의 행군>도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겠소. …결정적인 것은 외적요인이 아니라 내적요인이요. 우리는 일심단결된 우리의 힘으로 적들의 경제붕쇄책동도 자연재해도 짓부시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동면하는 식으로 참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동적으로 난관을 타개해나가야 합니다.<sup>37</sup>

<sup>36</sup> 손영복, “눈길멀리,” 『조선문학』, 2004년 2호, p. 7.; 리라순, “문수봉 기슭에서,” p. 16.

<sup>37</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p. 246~247.



즉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으나 문제 해결의 원동력은 내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소설 『열망』에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인민들의 “자력갱생의 의지”와 “신심”과 “래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sup>38</sup>이다. 이 점에서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은 “먹지않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sup>39</sup> 문학작품 속에서 난관 돌파의 열쇠로 제시된 ‘자력갱생’의 태도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주의’와 대비된다.

김문창의 『열망』에 나오는 회남종합기계공장의 주장직장장과 당 비서간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미래에 대한 ‘혁명적 낙관’이나 ‘열망’과 대비되는 ‘패배주의’적 태도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 소설은 또한 경제난이 심화되는 이유의 하나로 ‘책임일꾼’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경제난이 미국의 경제봉쇄 등과 같은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혁신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관행주의와 관료주의 같은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와도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주강품이 나오자면 28가지 원료, 부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느것 하나 제대로 보장되는게 있는줄 아나? 그런 형편에서 무슨 구명수가 보여야 말하지.》 …자넨 병이 단단히 들었구만! 패배주의병이 단단히 들었어! 그런 머리에서 생각이 나올게 뭐가. 낚시질할 생각이나 나왔지.…”

《평양에 있었으니 우리보다 더 알겠는데, 경제가 풀릴 전망이 있나?》 《있지 않구, 신심을 가지라구.》 《아져야지.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 어디?》 《이겨내야지. 그래 그게 누구때문인 줄 아나. 경제일꾼들이 일을 쓰게 못해서 그런거지. …우나 아래나 자네같이 단위를 책임진 사람들이 제구실을 못해서 그런거네.》<sup>40</sup>

<sup>38</sup> 김문창, 『열망』, p. 209.

<sup>39</sup> 리영환, “뜨거운 석양,” 『조선문학』, 2005년 10호, p. 29.

실제로 배급의 중단과 식량난의 장기화는 주민들이 장사를 하거나 공장의 유휴자재를 이용하여 공동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거나 소규모의 개인경작지에서 식량을 재배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관계망을 활용하여 생활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개인적인 ‘자력갱생’의 생존방식을 터득하게 하였다. 새터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고난의 행군기에 굶어죽은 사람들은 “별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조직생활만 하면서, 직장에 나와서 굶어죽은 고지식한” 사람들(K3, 황해북도 출신, 1998년 7월 탈북)이거나 “얼띤”(S1, 평양 출신, 2003년 말 탈북) 사람들이다.

그런데 소설에서 언급된 ‘자력갱생’은 개인적인 생존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의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북한 주민들이 보여주는 자력갱생의 생존방식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강계정신』에서 주인공 장두철의 죽음은 “현장에 쓰러지면서도 남들처럼 장사를 하며 자기 일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두철은 자재와 전기와 기술은 물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도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력갱생의 노력으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살려내고’ 그 댓가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그의 희생은 공장과국가를 희생시키는 동력이 되고, 그로써 아사자인 장두철은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는다. “자기의 재간을 가지고 가정용철제품 같은것을 만들어 팔았어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남들처럼 장사를 하며 자기의 량심을 속이고 싶지 않았기때문에 현장에서 쓰러지면서도 일터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 량심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킨 그 귀중한 보배덩이”로 표현된다.<sup>41</sup> 국가가 인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

<sup>40</sup> 김문창, 『열망』, p. 77.

<sup>41</sup> 리신현, 『강계정신』, p. 16.

는 시기, 지금까지의 생존방식과 가치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시기에, 옛 체제와 옛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량심’은 체제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것이 북한 소설과 북한의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어긋나는 지점이다.

2000년 『조선문학』에 발표된 양해모의 “결석대표” 또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한인국은 시공조직설계사업소의 기술자로 경제난 상황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의지로 제주파유도로를 설계하고 시공한다. 그는 쉬지 않고 발전기를 설계하다가 중병에 걸려 현장에서 쓰러지지만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 참가할 대표로 선발된다. 한인국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환자가 아니라 ‘자력갱생’의 모범을 보인 공장의 ‘대표’로 다시 태어난다. 당일꾼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한인국을 문병하는 다음 장면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기술부원장선생, 이 호실 출입문우에 붙은 <구급소생실>이란 패쪽을 당장 떼여 버리시오. 이 호실에서는 구급소생환자가 아니라 력사적인 대회에 참가해야 할 우리 기업소 대표들중의 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국은 심장이 터져 나갈것 같은 충격을 느끼며 얼굴을 창박으로 돌려 버렸다. 더는 자신을 견잡을수 없었다. 꿈에도 바랄수 없었던 행복의 절정우에 자신이 올라선것이 아닌가.<sup>42</sup>

현실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이 지점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상이 ‘구급소생실’에 다름아닌 것이었다면, 이 시기 소설들은 그들의 삶에서 ‘구급소생실’의 팻말을 걷어내고

---

<sup>42</sup> 양해모, “결석대표,” p. 43.

국가적 위기를 ‘자력갱생’의 의지로 극복해나가는 전사의 영예를 부여한다. 소설속의 일상적 영웅들은 식량부족과 경제난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개인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숨이 붙어 가지고도 나라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치부된다.<sup>43</sup>

이쯤되면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존의 현장은 일종의 전장(戰場)으로 거듭난다. 북한의 소설은 또한 그 전장에서 맨주먹, 맨몸으로 싸우는 수많은 1990년대식 영웅들을 창조해냄으로써 ‘일상을 전장화’<sup>44</sup>하는 이념무장을 통한 현실 극복의 논리를 보여준다. 이들이 이전시기 소설의 영웅들과 다른 점은 이들은 처음부터 영웅다운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함도 지니고 있으나 일정한 계기를 맞아 갈등과 고뇌 끝에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일상적인 영웅’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경제관리라는 단순한 경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상관점, 사고방식에서의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일련의 ‘봉화’형 모델-성강의 봉화(1998년)·락원의 봉화(2000년)·라남의 봉화(2001년)-을 제시했다. 이러한 봉화형 모델 하에서 김정일 시대의 노동영웅들이 탄생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경제환경에서 절약, 인내를 슬로건으로 내건 북한의 영웅 담론은 1980년대 ‘숨은 영웅’의 후속 담론으로서의 ‘대중 영웅주의’를 거쳐서 선군정치 하에서 ‘군인 영웅’ 담론으로 전환되었다.<sup>45</sup> 우리

<sup>43</sup> 김홍철, “꽃강냉이,” 『조선문학』, 2000년 9호, p. 32.

<sup>44</sup> 고인환, “‘거인’의 몰락과 북한 소설의 향방,” 『문학수첩』, 제1권 제3호(2003).

<sup>45</sup>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2권 1호(2004), pp. 199~201.

는 다음의 소설 속에서 그러한 ‘대중 영웅주의’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아버지는 《고난의 행군》 때에도 육십살이 지난 몸으로 통신원가 방을 벗지 않았다. 생활난때문에 출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아버지는 더 많은 구역을 맡아야 했다. …어느 해, 남들이 다 쉬는 설이 틀날에 아버지는 무더기눈을 헤치며 립산마을로 가다가 눈사태에 파묻혀 길에서 순직하였다. 그때 아버지의 통신원가방에는 새해공동사설이 실린 당보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시련의 나날 집집마다 쌀은 떨어졌어도 신문과 출판물들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자양분을 공급하여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불러 일으키지 않았던가!<sup>46</sup>

소설 속의 ‘아버지’는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버지’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다. 마지막 순간 그의 통신원 가방에 들어있던 당의 지침이 담긴 당보로 인해 평범한 아버지의 순직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고난의 행군 끝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같이 평범한,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개인의 생존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사회적 임무를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대중적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소설은 강조하고 있다. 이 소설에 나타난 ‘대중적 영웅’은 거대한 사건이나 위훈의 한 복판에서 있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1980년대식 ‘숨은 영웅’<sup>47</sup>의 연장이다.

소설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군인 영웅’의 전형은 돌격대원이

<sup>46</sup> 김해성, “제비,” 『조선문학』, 2002년 11호, p. 66.

<sup>47</sup> 김재용, “이북 문학의 흐름: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p. 289.

다. 실지로 고난의 행군시기에 ‘청년영웅고속도로,’ ‘안변청년발전소’ 등 적지 않은 대형 공사가 청년돌격대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안변 청년발전소 건설과정을 그린 한웅빈의 “스물한발의 <포성>”<sup>48</sup>에는 선군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는 영웅들이 나온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박철은 신병훈련을 마치고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을 위한 회양-안변간 45km구간의 수로터널 공사에 참가한다. “동문 군대요, 사민이요?”라고 소대장이 물었을 때, 박철은 “군입니다!”를 외친다. 그러나 군인과 사민(私民)의 차이를 묻는 소대장의 질문에 박철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사민과 군인의 차이는 이후에 전개된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수로터널공사에 투입된 군인들 앞에 놓인 것은 물과 돌과 흙이 전부였다. 사민이라면 먼저 막사를 짓고 진을 치겠지만, 군대는 갱굴진을 위한 박토작업부터 시작했다. 수로터널공사가 막장에 이르렀는데, 10m 남짓 되는 구간에 있어야 할 레일이 없었다. 옆친데 옆친격으로 양수기가 고장나 급조한 나무레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막장에 물이 차올랐지만 대원들은 웃음속에서 서로의 지혜를 보태 물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레루’를 이용해 버력을 운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철은 발파가스에 질식하여 실려나가지만, 식초에 적신 솜을 넣은 병을 대고 숨을 쉬고 김치물을 마시는 응급처치후 다시 ‘전투’에 참가한다. 군인과 사민은 이로써 차별화되고 군인 영웅은 사민이 따라배워야 할 모델이 된다.

<sup>48</sup> 한웅빈, “스물한발의 <포성>,” 『조선문학』, 2001년 4호.

## 2. 일터의 상실과 생계 대안

현대적인 자동베트흐름선과 다른 기대들도 모조리 숨 죽은듯 멎어 서 있지 않은가. 땀그렁한 현장안에서 로동자들이 육중한 함마를 맥없이 쳐들어 올리며 느릿느릿 일손을 놀렸다. 시커멓게 기름이 찌들어 뻘 현장의 세멘트바닥우에 가로세로 놓여 있는 둔중한 베트본체에 여러명이 달라붙어 스펙스적 줄칼질을 하고 있었다. 창문밑에 기진맥진해 누워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굶주림으로 인한 기력부족인가? 공장에 출근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했지 만 로동자들은 견디며 내며 기적적으로 일하고 있었다.<sup>49</sup>

위의 장면은 리신현의 『강계정신』에 등장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공장의 모습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공장의 가동도 어려워졌다. 소설에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기계들이 멎어있고 몇 사람 안되는 노동자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며 최소한의 손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기 대부분의 북한 공장의 작업장 모습이다. 몇 명의 노동자라도 모여서 손노동을 하는 것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에 속하고, 많은 지방 공장들이 공장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 시기 공장의 가동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새터민 증언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30-40%를 밑도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sup>50</sup>

생산의 차질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첫째, 자재와 원료가 부족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기계를 가동할 수도, 제품

<sup>49</sup> 리신현, 『강계정신』, pp. 13~14.

<sup>50</sup> 정우곤·이주철은 북한의 공장가동률을 1990년에는 평균 40%, 1996년에는 평균 25%로 보고 있다. 정우곤·이주철,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다. 둘째, 배급 중단으로 노동자들이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출근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자재난과 전력난의 상황은 북한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함북지구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кок스탄반입이 동결되어 김책제철소의 불이 꺼져버릴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아예 기계를 멈추고 문을 닫아버린 공장들도 있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몇 개의 공장, 기업소들만이 전기와 자재가 모자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기적적으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었다.<sup>51</sup>

이제는 전기공급량이 절반에서 절반으로 또 줄었다고 하니 아무리 깐지게 전기를 아껴써도 도저히 생산을 지탱해 낼수 없었다.<sup>52</sup>

《전달에 쇠동발을 30프로도 못했는데 이달에는 얼마나 할수 있습니까?》 《글썸말입니다》 직장장은 답답하다는 듯이 뒷머리를 긁었다. 《10프로나 하겠는지... 소재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곡사슬콘베아도 비슷합니다. 4대분밖에 소재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라앉았습니까, 공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던 공장입니까? 탄광설비생산 50프로도 못하는 공장으로 되어버리다니...》...

《뭘, 그러는게 우리 공장뿐입니까. 그래두 우리 공장은 괜찮은편입니다. 큰집이 기울어 3년이라구 지금까지는 예비를 다 동원해서 그러저럭 지탱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렵게 됐습니다.》<sup>53</sup>

---

<sup>51</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 278.

<sup>52</sup> 위의 책, p. 228.

<sup>53</sup> 김문창, 『열망』, pp. 6~9.



새터민의 증언도 소설 속에 나타난 공장 상황이 현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지방공장은 “명절 때 잠깐 돌아가고, 제지공장도 학기말이면 새학기 아이들의 학습장 공급을 위해 조금씩 돌아갔다”고 한다. 7·1조치 이후에도 “기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산다고 하지만 자재가 없으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S1, 평양 출신, 2003년 말 탈북). 또 다른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담배공장이랑 술 공장이랑 신발 만드는 공장 같은 일용품 공장은 좀 돌아가고 다른 지방 산업 같은 것은 제법 늦춰졌다.” 평양방직 같이 큰 공장은 “일부만 돌아가고 100%는 다 못 돌아갔다”고 한다(H4,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물건을 만들 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원료를 대신할만한 재활용품들을 주변에서 확보하여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2000년에 발표된 양해모의 단편소설 “결석대표”에서는 주인공이 발전기 부품으로 들어가는 철심자재인 규소강관을 구하려고 사방을 찾아 헤매고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변압기와 용접기에서 작은 철심들을 추출하여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것이 소설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력갱생’의 생산 방법이다.

그런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전선이나 폐기계 따위의 금속 조각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주민들의 수집 대상이기도 했다. 소설 『강계정신』에는 김책제철소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장들의 구내는 쇠꼬챙이 한오리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반반”했기 때문에 강계시 아파트의 “철문을 몽땅 뜯어서라도” 철을 모아올 것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온다.<sup>54</sup> 그러나 이러한 폐품수집식의 ‘자력갱생’ 생산방식의 한계는 명확한 것이어서, 폐자재나 생산하고 남은 자투리 원료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은 8:3 소비품 정도였다. 이 또한 소설 속에서도 긍정적인 어조로 묘사되어 있다.

《철제일용품공장인데 우리 청룡기계에서 나오는 쇠밥무지여서 철판조박지들을 회수해서 못이나 압정같은것을 만들지요. 나라에서 예비를 탐구하자고 호소할 때 생겨난 공장인데 뭐 말이 공장이지 자그마하고 아직 미흡한데가 많지요.》… 나라의 경제사정은 아직도 긴장한때에 국가로부터 자재를 따로 받지 않고 압정이 나 못 한개라도 더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라.<sup>55</sup>

지방공장의 경우에도 8:3제품 생산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각 공장 기업소가 자체적인 매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K6, 함남 함흥 출신, 2003년 6월 탈북). 이를 통해 당정기관의 도움 없이 기업소가 직접 노동자들의 식량 문제를 일부 해결해주기도 한다. 청진화학섬유 연합기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한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 직장에서 8:3 인민소비품을 만든다. 종류가 꽤 많다. 유모차, 인견바지, 세수수건, 부풀사담요, 변압기, 전기풍구 등이다. 직장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협동농장과 거래한다. 이런 제품들을 팔고 식량을 사는 것이다. 어떤 직장은 강냉이도 한 사람들에게 5-6이삭씩 주었다.(C1, 청진 출신)<sup>56</sup>

---

<sup>54</sup> 리신현, 『강계정신』, p. 242.

<sup>55</sup> 최성진, “붉은 해당화 언덕,” 『조선문학』, 2005년 1호, p. 65.

<sup>56</sup>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p. 86.

실제로 공장 단위의 ‘자력갱생’은 폐자재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산 자재의 확보와 장마당을 통한 물품의 판매 등 상당히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공장의 생산물을 종업원에게 주고 장마당에 가서 장사꾼에게 넘기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의 임금을 대신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7·1조치 이전에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제당하는 행위였으나 이후에는 지배인이 노동자들을 직접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에 허용되었다.

7·1조치 이후에는 공장과 기업소의 독립채산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기업소 이윤에 대한 자체 처분권이 강화되었다. 기업소 자체적으로 수입을 임금과 기업 운영용으로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지표가 기업소에 할당되고, 기업소는 이를 토대로 해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소 상호간에 물자를 교류할 수 있는 물자교류시장도 조직되었다.

중앙공장의 경우 장마당 등을 통한 임의 처분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방공장은 지배인 권한으로 자기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처분할 권한이 생긴 것이다. 개인장사꾼들이 직접 공장에 와서 생산물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많은 물량을 사서 장마당이나 중개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예 공장 자체의 운영권을 사는 경우도 있다. 자재를 대주고 생산한 물건의 판매 수익 중 얼마를 서로 나누는 형태, 중국이나 다른 자금줄을 대어 주고 일정 부분의 지분을 챙기는 형태 등 지방공장에 관여하는 형태는 다양하다.<sup>57</sup> 이러한 방식의 공장 운영 사례를 한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up>57</sup>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 340~341.

북에선 모든 기관 기업소는 자체로 살아가는 삶을 꾸려라. 어떤 형태로든 국가 물자는 안 된다, 종업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돈을 유용해서 자체로 살아가라 지시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함남도에 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금광관리국이 있는데, 돈을 마련해서 문천에 가서 아연정광을 싸게 사서 중국에 팔아먹는다. 그래서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종업원을 나눠준다. 공적인 목적을 위한 장사이다. 너무 커지면 안 되고 검찰의 눈에, 법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히 한다. 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조용 기업소가 살아갈 수 있게 하라 한다. 당연히 그때 개인적으로 챙길 수 있는 돈도 챙긴다. 거기서 재미 들었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 가동이 어려웠던 또 하나의 원인은 출근을 저하이고, 출근을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량난이었다. 소설에서도 이 시기에 식량난으로 인해 출근 인원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지난 날 나라의 크고 중요한 대상들을 건설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 《힘있는 건설부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기업소였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자력갱생기지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식량난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sup>58</sup>

《종업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또다시 물으시는 그이의 조용한 음성에 지배인은 당황한 눈길을 어디에 돌지 몰라하였다.

《저… <고난의 행군>을 겪다니 지금은 절반밖에…》<sup>59</sup>

<sup>58</sup> 양해모, “결석대표,” p. 39.

<sup>59</sup> 리라순, “샘은 깊은 곳에서 솟는다,” 『조선문학』, 2004년 1호, p. 16.

공장에 출근해도 배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출근 이외의 생계 대안을 강구해야 했다. 생계유지의 대표적인 수단이 된 것은 크고 작은 규모의 장사였다. “직장에 나가도 장사 안하고는 못” 살기 때문에 “직장 다니든 안다니든 거의 다 장사를 한다.”(H4,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고난의 행군기’에는 어차피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거나 극히 부분적으로만 가동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더라도 공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종종 8:3제품 생산이나 도로 정비 같은 사회노동에 동원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침에 출근도장 찍지만, 아침조희 간단히 하고 각자 장사를 하러 나갔다.”(K8, 해산 출신, 2003년 3월 탈북)

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워지자 공장에서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생산대금을 노동자들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 각자 8:3제품 제작이나 장사 등으로 마련한 돈을 공장에 납부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출근을 한 것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었던 식량배급의 대상이 되고 직업동맹 등 근로조직의 간섭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사를 통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자 직장에 돈을 내고서라도 장사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제철소에서 어떻게 하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다가 몇백원씩 바쳐라, 정확히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한달에 삼백원을 바쳐라, 그러면 한달을 시간을 쥐요. 일한 걸로 직장에서 조직생활을 한 걸로 처리를 해주고, 돈 바치고, 돈 바친 사람은 장사를 다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득이거죠. 오히려 그게 이득이에요.(K3, 황해북도 출신, 1998년 7월 탈북)

그런데 북한 문학작품 속에서 주민들의 상거래행위에 관한 묘사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상거래와 장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이기는 하지만, 1990년에 발표된 김용한의 단편소설 “마지막 낚시질”에서는 ‘장사군’이라는 칭호를 “더러운 이름”이라 표현하고, 낚시질로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2000년대에 발표된 소설에서는 시장에서 식료품을 비롯하여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은 종종 등장하지만,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리희남의 단편소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속품을 찾는 것을 핑계삼아 개인적인 식량을 구하려는 노동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장에 물고기를 한번만 내다 팔면 신발값은 생기고도 남을 텐데요 뭐.》 … 《임잔 시장에 다니나?》 《아니요.》 《그런데 그런걸 어떻게 알아?》 《어른들이 말하는걸 들었어요.》 … 《사람이 물건에 신경을 쓰면 못써!》 … 《여기 고기를 다 잡아내면 돈을 얼마만치나 벌가 하는 타산을 한단말이야. 껌한것들… 《저것들은 이 강을 위해서 나무 한그루 심지 않고도 공짜로 황재할 생각만 하는것들이야.》 … 《저것들은 장사군이야. 진짜배기 낚시군은 고기를 가지구 장사를 안해.》 …

《이 장사군같은 녀석! 그래도 사람구실을 할것 같아서 5년철을 데리고 다녔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찌구 어찌…뭐 청탁받아? 이…이 덜된놈!》 … 《<장사군>이라는 더러운 이름을 받은데다가…》<sup>60</sup>

굴착기운전공들은 식량사정이 곤란했다. 주변농장들을 찾아다

<sup>60</sup> 김용한, “마지막 낚시질,” 『조선문학』, 1990년 8호, pp. 42~44.

니며 식량을 얻으러 나선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가까운 친척들의 도움을 받자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익살꾼 라문진이 북중에 가서 그 부속품들을 얻어오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북중에 자기의 처가가 있으니 그 줄을 타면 요구되는 부속품들을 얻어낼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이었다. 라문진은 이미전에 벌써 식량 때문에 초소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제기하려다가 초소의 형편을 보고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속품문제가 제기되자 이렇게 선뜻 나서는것이였다. 필경 처가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리라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 행위로밖에 볼수가 없었다.<sup>61</sup>

그러나 실지로는 장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개별적으로 장사 시작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이게 다 없어지고”(K4, 함북 출신, 2003년 5월 탈북), “예전엔 장사하는 것을 미천한 등급으로 낮게 보았지만, 요즘은 장사 안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말할” 정도로 “장사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다(K8, 해산 출신, 2003년 3월 탈북).

공장 가동의 파행화와 시장의 활성화는 개인수공업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7·1조치와 시장 활성화 이후에 주민들은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물건들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시장에서의 상거래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팔렸기” 때문에 “풀 뜯는 사람은 풀 뜯고, 사탕 만들어 파는 사람은 사탕을 만들어 팔았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장사할 작은 자본도 없는 사람들은 연줄을 통해 공장에서 원자재를 조금 외상으로 인계받아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파는 방식으로 장사를 시작하기도 한다(K4, 함북 출신, 2003년 5월 탈북).

<sup>61</sup> 리희남,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pp. 30~31.

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에는 공장일 이외의 개인적인 일에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보흠의 『라남의 열풍』에는 공장의 주요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에게 공장일 대신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면 식량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곽경두의 말은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자기네 짐배기계를 고쳐주면 한달 먹을 식량을 주고 새 짐배설계를 하나 떠주면 1년 먹을 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 《기계를 고쳐주면 그들에겐 생산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동무넌 먹는 문젠 해결하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지.》<sup>62</sup>

개인장사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술은 단연 운전기술이다. 장사할 물건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공장의 운전기사들이 기업소 소유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장사를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운전대 잡았다하면 생활에선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선호직업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한 탈북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자기는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기 개인 일을 합니다. 그게 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차 한번 쓰는데 큰 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만원씩 줍니다. … 차를 가지고 물동 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와라 하면서 하루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왕

---

<sup>62</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 289.



창 밟아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할일 하는 겁니다. 원래 못쓰게 돼 있는 거죠. … 아니면 뭐 타이어가 하루 더 쓴다고 닳길합니까? 괜찮죠 뭐. 날마다 편다고 뭐… 사고가 나는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거긴 아직까지 영성합니다.(H1, 평남 운산 출신)

실제로 기업소 소유 차량이나 중장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김혜성의 단편소설 “열쇠”는 바로 그런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공장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다가 사고로 중장비를 파손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장비 운행에 사용될 기름을 훔쳐 팔아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락후한’ 사람이다.

그가 비록 락후한 사람이었지만 공장에서는 운전수가 되고 싶어 하는 그의 희망을 귀중히 여겨 그를 불도젤운전수로 키워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 믿음을 악용하였다. 책임운전수가 없을 때마다 빈번히 불도젤의 기름을 훔쳐서 술과 바꾸었고 지어는 공장에 한대 뿐인 불도젤을 마구 혹사하였다. 그가 법적제재를 받은 것도 자기 술친구의 터밭을 일구어준다고 하면서 불도젤을 막 몰아대다가 벼랑턱에서 굴러뜨렸기 때문이다. 사고를 친날 그는 술을 저주하였다. 과연 술때문인가?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그를 타락시켰는가? 아니다. 그렇게밖에는 될수 없었던 그였다.<sup>63</sup>

이 소설에서는 기업소 소유 장비를 개인적 이익 확보 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쓰여야 할 공장의 자재와 원료를 절취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공장 재산의 절도는 실제로 경제난 이후 북한 공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식품 공장에서 생산품을 먹거

<sup>63</sup> 김혜성, “열쇠,” 『조선문학』, 2004년 4호, p. 67.

나, 원료나 제품을 조금씩 훔쳐 주머니에 넣어 온다거나, 탄광에서 땀감을 집으로 가지고 간다거나 하는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절도(K2, 함북 청진 출신, 1998년 12월 탈북)에서부터 탄광의 동발을 빼거나(H2, 함북 새별 출신, 2003년 탈북) 공장의 기계를 뜯어다가 파는 것(K1, 함북 청진 출신; Y2, 평남 안주 출신; H1, 평남 운산 출신)과 같이 생산에 타격을 주는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절도가 일어났다. 공장의 전동기를 몰래 떼어내서 시장에 팔아 돈으로 바꾸고 그 중 일부를 공장에 납부하고 일부는 식량으로 바꾸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H1, 평남 운산 출신). 물론 이러한 행위는 작업장에 따라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한 탄광노동자는 안주탄광에서는 절도 행위가 없었는데 금야탄광에서는 수백개의 전동기 중 60%가 노동자들에 의해 도난당해 탄광에 물이 고여도 양수기를 돌리지 못하여 채탄이 중단되었다고 증언한다(Y2, 평남 안주 출신). 공장 자재를 절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은 소설 『강계정신』에도 나타나있다.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문과 헛간 지붕에 사용된 철판이 “다 동무네가 자재관리를 떨떨히 하여 새나간 철판”이라고 지적하는 장면이다.<sup>64</sup>

공동재산에 대한 사소한 절도행위는 경제난 이전에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었으나, 경제난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수단의 일환으로 기계를 뜯어 내다파는 등 극단적인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공장의 물리적 생산 기반을 피폐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내 똬을 챙기는 것”으로 인식한다(H2, 함북 새별 출신, 2003년 탈북).

<sup>64</sup> 리신현, 『강계정신』, p. 242.

경제난 이후 생계수단으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개인 또는 공장이나 협동농장 단위의 텃밭재배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소설에 표현된 바에 의하면 텃밭 농사로 가족의 식량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하여 이윤을 얻기도 한다. 또한 가내축산반을 구성하여 염소, 토끼,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공장에서 강냉이, 수수 등 잡곡을 심어 노동자들의 식량을 보조하기도 한다(C1, 청진 출신).<sup>65</sup>

자못 근면한데다 손부리가 영글고 눈썰미가 좋은 그의 안혜는 터전에 심는 마늘과 도마도에서는 물론 돼지, 개, 닭을 잘 길러 해마다 굉장한 수입을 얻었다.<sup>66</sup>

그집 텃밭농사는 어떻구요. 겨울엔 박막을 씌워서 부루, 쑥갓, 배추를 키우고 봄엔 감자를 심었다가 하지무렵엔 고추를 옮기구 고추가을을 하고나선 마늘을 심구, 이런식으로 손바닥만 한 땅도 거저 놀리는 법이 없어요.<sup>67</sup>

문인숙이 집앞에 가보니 텃밭농사가 정말 볼만 했다. 이랑에는 감자를, 고랑에는 갖가지 남새를 심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강냉이포기들도 보였다. 한데 어울려 자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싱싱했다. 사람들의 말처럼 작은 《시험포》였다.<sup>68</sup>

북한의 소설과 새터민의 구술 속에 나타난 경제난 이후 대안적 생

<sup>65</sup>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p. 85.

<sup>66</sup> 김문창, 『열망』, p. 15.

<sup>67</sup> 변창률, “영근이삭,” 『조선문학』, 2004년 1호, p. 50.

<sup>68</sup> 변창률, “밑천,” 『조선문학』, 2005년 11호, p. 68.

계 유지 방식의 양상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기에 볼 수 있었던 주민들의 일반적인 적응 형태와 유사하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에 다음과 같은 적응 유형이 나타난다. 첫째, 사기업과 협동조합적 형태의 생산의 합법화를 바탕으로 사적인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제2경제형태에 적응하여 사회주의적 분배체제의 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도 사회주의 재분배체제가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 위기국면 발생시 생존을 위해 가족과 친구관계에 의존하거나 전통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단에 의존하는 생존경제로의 복귀 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기존의 생활수준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구체제의 특성에 매달린다.<sup>69</sup>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특히 제2경제형태에 대한 의존과 생존경제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안면관계에 기초한 사적 연결망과 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자본의 일종으로서 ‘후견주의 네트워크’ 또는 ‘블라트(blatt)’ 라고 칭하기도 한다. 구 소련에서 나타난 블라트는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돕는다’는 상호적 관계에 기초하여 친구, 친지, 지인들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결핍경제 하에서 부족한 물자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비금전적 거래를 의미한다.<sup>70</sup>

<sup>69</sup>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7~58.;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통일연구원, 2001), p. 30에서 재인용.

<sup>70</sup> Alena Ledeneva, “Continuity and Change of Blat Practices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S. Lovell, Alena V. Ledeneva & A.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London: Macmillan Press Ltd., 2000), pp. 183~184.

1993년에 발표된 한웅빈의 “《행운》에 대한 기대”<sup>71</sup>는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안면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인공 ‘나’가 등장한다. ‘나’는 어느 날 아내의 친정집 근처로 출장을 가게 된다. 역에서 열차표를 사면서 안내원으로 있는 아내의 친구를 통해 차표를 사면 빠를 것이라는 계산에서 아내의 친구에게 부탁을 하나 오히려 줄을 서서표를 사는 것보다 더 늦어져서 겨우 열차에 오른다. 한 시간이 더 지나서야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자리는 우연히도 시주택 배정처에 근무하는 사람의 옆자리였다. 마침 시내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을 배정 받으려 했던 ‘나’는 “배정처가 나를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기회에 안면을 익혀 나중에 집 배정을 부탁해두려 한다. 그런 계산에서 그는 장인에게 드리려던 고려인삼술을 그에게 억지로 안겨주고는 “배정처 지도원은 아마 열차에서의 《고려인삼술》이 인상적이어서도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울긋불긋한 상표와 황금빛의 술색깔을 통해서라도 나를 기억해낼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출장지에 도착하여 처가로 향하는 길에 그는 벌써 집배정을 받았다는 아내의 편지를 받고는 “무엇인가 못미덥고 걱정스러워 동분서주했던 일은 죄다 고생만 했을 뿐 헛수고로 끝났음”을 깨닫는다.

주인공이 안면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지는 이 소설은 차표를 사는 것에서부터 주택을 배정받는 것까지 크고 작은 생활상의 여러 가지 혜택과 편의를 얻는 것이 ‘안면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북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소설에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구역건설대와의 ‘교섭’을 통해 개인주택을 크게 지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sup>72</sup>

<sup>71</sup> 한웅빈, “《행운》에 대한 기대,” 『조선문학』, 1993년 10호.

1990년대 들어와 안면관계에 기초한 비공식 네트워크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 사회자본이 경제영역에서는 연결망의 형태로 각종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인간적 관계를 의미했고, 정치적으로는 지위를 확보하는 연줄을 의미했으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유대를 의미했다면, 1990년대에 사회자본은 ‘생계’를 해결하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 수준을 설명하는 데 더욱 적합한 형태로 성격이 변화되었다.<sup>72</sup>

경제난 이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안면관계의 활용은 장사 등 생계유지를 위한 작업장 이탈과 정치교육 불참에 대한 용인과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다. 주민들은 장사를 위해 직장의 관리자, 중하위 관료들에게 뇌물과 작업장 이탈의 대가를 지불하고 관료들은 이를 묵인하고 허용하는 대가를 받는다. 해당 관료들에게 상납을 하고 이를 통해 생계활동과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공권력의 묵인을 얻어내는 자본을 홍민은 ‘관료자본’이라 개념화하고 있다. 생계활동을 위한 교섭의 사례를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활충화도 100% 중 80%가 참여하면 구성되어 실시한다. 한 달에 세 번 이상 빠지면 조치를 취한다. 우리 경노동장의 경우 직장에서 내쫓는다. 내보내면 다른 데 가서 일해야 된다. 경노동장의 유리한 점은 여느 직장처럼 통제받지 않고 많이 빠질 경우에만 통제를 받는다. 혹시 나 같은 경우 청진 나가서 생활충화 전에 못 돌아오면 돌아온 뒤 직장장에게 뇌물로 담배 다섯갑 정도 주면 증명위원장에게 “내가 그 사람 시켜서 보냈다”고 하면 증명위원장도 말 못한다. 그러나 너무 남의 눈에 띄게 빠지거나 뇌물이 작다거나 하면 안 된다. 그간에 장사중 위법행위를 너무해서 경찰에게 붙잡

<sup>72</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p. 289~294.

<sup>73</sup>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p. 40.

히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일단 법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C4, 함북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주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규율 위반을 목인할 뿐만 아니라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윤 창출 구조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경우도 있다. 뇌물을 받고 장마당, 가내수공업, 자영업 관리, 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하는 경우이다. 고위 관료의 경우에는 경제적 투자나 사업수익 배분 등의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경제적 상위 계층과 결탁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새터민들의 증언이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대흥단군의 경우 김정일이 일제 화물차 10톤급 100대를 감자수송하라고 줬는데, 국가일로 나가기 때문에 청진 같은데 빈차로 나갈 때 감자를 채워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돈 줘야 되는데 중간간부는 자기권한으로 공짜로 쓴다. 운전기사도 이 사람들 다 끼고 하고, 이렇게 다 얹혀있다.(C4, 함북 출신, 2003년 11월 탈북)

당 간부도 크게 장사를 한다. 기업소의 예산을 가지고 돌려치기 한다든지 재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원칙적으로는 못하지만 기업을 관리하는데도 필수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도 그렇다. 권력이나 간부의 이미지가 있지만, 무역의 이미지로 장사를 하기도 한다. 먼 공장 기업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원료도 전기도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릴 경우는 노동자들에게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시간을 주어서 얼마의 돈을 기업소에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돈으로 공장의 위생관리비나 사무용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이는 안면관계에 기초한 상호간의 편의확보를 넘어서서 뇌물공여

와 경계가 모호해지게 된다. 경제난은 주민들간의 상호협력의 여지를 축소하고 자신의 생존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제 주민들은 생활상의 사소한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안면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또한 돈이 개입되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전례를 체제 전환 이후 구 소련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구체제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낡은 규칙과 관행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새로 형성되는 사회질서의 조직적 바탕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는 나아가 사회적 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관계망으로서 개인이 생존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되어 구체제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새로운 집단의 상향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회유동성을 제약하였다.<sup>74</sup> 체제 전환 이후에 나타난 블라트는 이전과는 달리 돈을 벌거나 벌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재산의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시장정보와 관료적 의사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즉 개인의 사적인 재산 증식을 위해 동원되었다. 소련시절과 동일한 방식과 채널의 블라트가 활용되었으나, 새로운 ‘자유 시장’이라는 환경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비금전적 상호관계에 금전이 개입되고, 블라트는 부패로 변질되었다.<sup>75</sup> 현재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안면관계 역시 블라트가 뇌물공여와 부패로 변질되었던 구사회주의 국가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sup>74</sup> 배정환, “러시아의 사회자본과 비공식 네트워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003), p. 439.

<sup>75</sup> Klavs Sedlenieks, “Cash in an Envelope: Corruption and Tax Avoidance as an Economic Strategy in Contemporary Riga”, Karl-Olov Arnstberg & Thomas Borea eds.,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2003), pp. 40~41.





# IV

## 재생산 영역의 주민생활



## 1.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생활 팽창

경제난 이후, 특히 고난의 행군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가에 의한 식량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소설 속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1980년대만 하여도 이 지방에서는 별로 쌀걱정을 모르고 지냈다. 1960년대는 얼마나 유족했던가. 상점마다 과자, 사탕, 기름, 물엿이 가득했고 닭, 오리, 소, 돼지고기들이 고기매대에 줄줄이 걸려있었다. 농촌상점 뒤마당에 돌아가면 커다란 꿀독이 서너개씩 놓여있었다. 물고기 상점에서는 명태가 너무 넘쳐 야단이였다. 인민반으로 집집이 공급되는 명태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터여서 상점의 많은 물고기들이 비료차에 실려 농촌으로 가기가 십상이였다. … 우리식 사회주의가 바로 지상천국임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한끼 식량을 걱정하며 구차스레 쌀을 구하러다니고 있었다.<sup>76</sup>

《상점에서 샀는가요?》 《예, 메깁니다. 메기요.》 이거야말로 사변이로군!… 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이 나갔다. 상점에서 저렇게 물고기 팔아 본지가 얼마나 되는가? 간혹 명절날에 공급 받았다는 명태나 가재미 몇마리를 본적이 있으나 정작 저 상점에서 물고기 파는것을 본 기억은 삭막하다. 매대는 생선만 있으면 1년이라도 보관할만치 램동장비가 잘된 현대적인것이지만 거의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다.<sup>77</sup>

경제난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먹었던 음식은

<sup>76</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 242.

<sup>77</sup> 김병훈, “빈말은 없다,” 『조선문학』, 2002년 1호, p. 15.

풀뿌리와 나물죽,<sup>78</sup> 통강냉이, 당콩, 감자 그리고 무슨 가루인가를 섞어서 만든 범벅, 시래기범벅,<sup>79</sup> 강낭죽,<sup>80</sup> 강낭빵과 강낭국수,<sup>81</sup> 통강냉이 닭은 것,<sup>82</sup> 강냉이가루,<sup>83</sup> 국수죽, 강냉이묵지가루떡,<sup>84</sup> 강냉이로 만든 변성 가루<sup>85</sup> 등이었다. 사료가 없어서 돼지 대신 염소, 계사니, 오리 등 풀 먹는 짐승으로 바꾸는 문제를 토의하기도 하고,<sup>86</sup> 톱밥을 미생물처리하여 돼지먹이로 리용하는 연구도 수행될 정도였다.<sup>87</sup> 소설에는 간혹 산천어튀기, 농마지짐, 감자곱돌장,<sup>88</sup> 봉어지짐,<sup>89</sup> 까나리볶음, 고추장,<sup>90</sup> 다시마랭국 같은 음식도 등장한다. 콩나물무침, 감자채와 기름이 누렇게 뜬 닭고기<sup>91</sup>는 가족의 입당 축하 상차림에 오른 음식들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배급이 재개되었지만 식량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곳은 이제 배급소나 국영상점이 아닌 시장으로 바뀌었다. 다음과 같은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7·1 경제조치 이후에도 일상적인 배급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sup>78</sup> 김광남, “탄부의 보금자리,” 『조선문학』, 2002년 8호, p. 40.

<sup>79</sup> 리성식, “기러기떼 날은다,” 『조선문학』, 2003년 8호, p. 18.

<sup>80</sup> 김성관, “고고성,” 『조선문학』, 1999년 10호.

<sup>81</sup> 리희남,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p. 33.

<sup>82</sup> 김광남, “탄부의 보금자리,” p. 38.

<sup>83</sup> 김홍철, “꽃강냉이,” p. 32.

<sup>84</sup> 김문창, 『열망』, p. 369.

<sup>85</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 267.

<sup>86</sup> 김성희, “룡산의 메아리,” 『조선문학』, 2001년 5호, p. 44.

<sup>87</sup> 공천영, “함께 가는 길,” 『조선문학』, 2001년 11호.

<sup>88</sup> 김문창, 『열망』, p. 28.

<sup>89</sup>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2001년 3호, p. 50.

<sup>90</sup> 리희남,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p. 28.

<sup>91</sup> 김문창, 『열망』, p. 194.

경제조치 이후 식량은, 저희 도립 도서관은 교육 부분이라 국가에서 조금 신경 써줘서 몇 번 받아 봤다. 일반사람들은 거의 배급을 못 받고 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산다. 배급표는 쫓지만 배급소에서 물품을 주지 않는다. 어쩌다 명절이 있을 때, 10일분, 5일분, 설날 같은 경우 3일분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배급을 줬다.(L3, 함북 출신, 2004년 6월 탈북)

경제난 이래로 재생산 영역의 주민생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시장의 확대와 활성화이다. 1995년 국가식량배급제의 전면적인 붕괴가 장마당 활성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한 1998년 경에 장마당은 시장적 거래공간으로서 불안정하지만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sup>92</sup> 지금은 “십리 밖에서 들어도 사람들 말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와글와글 시끄러울”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C4, 함북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시장 활성화를 촉진한 두 가지 정책적 조치는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의 시장확대 조치이다. 7·1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대폭적 인상, 정부보조금의 대폭적 축소와 재정의 건전화 도모, ‘번 수입’에 의한 기업경영관리 평가방법의 도입, 성과에 따른 분배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관리와 운영에 큰 전환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공급부족 현상의 심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진행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개설, 과잉통화흡수와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인

---

<sup>92</sup>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p. 130.

민공채를 발행하였다.<sup>93</sup>

신문 등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말하는 바와는 다르게 북한 주민들은 7·1조치 이후 생활 수준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시장가격하고 비슷하게 모든 가격 올려 놓았는데, 근데 그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더 쟁쟁 뛰여 오르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 가격에 주는 건 없고, 월급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었다”는 것이다(H3,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새터민들은 7·1조치 이후 한때 가졌던 기대감이 사라졌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상당히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직업을 버리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이제 직장생활만 해도 살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일터로 복귀한 사람도 많았다. 제가 다니던 도서관에도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 그러나 몇 달간 지나고 보니, 또다시 그림의 떡이고 배급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다시 나갔다.(L3, 함북 출신, 2004년 6월 탈북)

계획을 초과수행했을 때에는 초과수행한 것만큼 장려금 또는 상금으로 주라고 해서 세달간 실시했는데, 광산 부분 노동자가 천 원 타던 사람이 이만원까지 타서 좋다고 인식이 됐는데, 석달 뒤에 중앙은행 자금 사정으로 제대로 주지 못했다. 말로만 그렇게 됐지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하고, 순간 석달간 밖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경제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석달간 하다가 국가 자원이 고갈되었다. 그 때부터 다음에 주겠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몇 개월 지나도 안 주니까 고난의 행군과

---

<sup>93</sup>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높이깊이, 2005), p. 25.

똑같다고 불만이었다.(K6, 함남 함흥 출신, 2003년 6월 탈북)

북한 주민들이 7·1조치로 인한 경제적 생활 향상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7·1조치로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20배 가까이 인상되었으나, 임금 인상을 초과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향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시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물자 구매 폭의 확대를 가져온 것은 오히려 2003년 3월의 시장 확대조치라고 볼 수 있다. 7·1조치의 후속조치로서 2003년 3월에 종래의 ‘농민시장’을 ‘시장’ 또는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새터민들은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즉 국가의 배급에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시장확대조치 이후의 생활 변화를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좋아진 게 뭐 있냐면 2002년 7월 1일 이후, 조치 이후에 막 물가 오르고 막 상당히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리다가 2003년 3월인가 장사를 하게 놔두라고 방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게 좋아졌죠. 그 전까지는 계속 단속을 했죠. 이 7·1조치 막 있는 다음부터는 굉장히 더 단속을 했었어요. 장사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이 가격으로 다 풀어준다하면서 장사를 엄청 단속을 했었어요. 천막 다 걷어내고 나오는 사람 다 붙잡아 가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때 2003년 3월에 장사하게 놔두라고. 사람들이 원이 뭐였냐면 국가에서 안줘도 좋다, 우리가 혼자 벌어먹고 살게 장사하게만 놔두라,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졌죠. 그래서 장사를 일단 놔두니까, 식품하고 약재하고 그 다음에 공장제품, 이 세 가지만 단



속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H3,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신발 파는 사람들의 경우 그 무겁고 부피가 큰걸 안고 팔다 단속이 뜨면 그걸 지고 산으로, 길로 뛰었던 상황이 바뀐 것만으로도, 편하게 장사를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북한 소설에서는 시장에서 상거래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주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닭알, 이면수, 가재미, 콩나물과 김”과 “순대국,”<sup>94</sup> “통닭이며 찹쌀, 물고기류며 신선한 과일”<sup>95</sup> 정도이다. 이것으로는 시장이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초래한 변화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몇몇 새터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시장의 확대는 돈만 있으면 기존에 배급이나 농민시장을 통해 얻기 어려웠던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비욕구를 창출하고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도시농민시장이 주민들의 부차적인 소비욕구를 실현시켜주는 경제적 공간으로서 국가상업유통망을 소극적으로 보조하는 기능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 장마당은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에서 중심적 기능을 하게 되면서 반(半)공식부문으로 자리를 잡았다.<sup>96</sup> 다음과 같은 새터민의 구술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의 소비생활에서 장마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sup>94</sup> 김문창, 『위의 책』, p. 28.

<sup>95</sup> 최성진, “지워지지 않는글,” 『조선문학』, 2000년 7호, p. 63.

<sup>96</sup>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p. 132.

1980년 넘어서면서 상점에서 팔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인민반 공급제가 됐어요. 그러다나니까 인민반 공급해주는 거 가지고 힘들어서 장마당에 나가서 30-40%를 챙겼어요. 1989년에 13차(청년학생축전) 끝나고 오니까 내의랑 이런거 상점에서 파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장마당에서 사 입었어요. 국영에는 진열품 정도나 좀 있었고 제대되니까 100% 장마당에서 해결해요.(S2, 2003년 9월 탈북)<sup>97</sup>

시장의 활성화가 가져온 상거래공간의 확대로 인해 일부 계층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는 소비 욕구의 분출과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소비의 욕구는 먹는 것, 입고 꾸미는 것, 주거 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경제난이 극심했었던 시기에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나 나물죽을 먹었지만, 장사를 하거나 권력과 연줄을 활용하여 돈을 모은 집안의 상차림에는 “낙지, 명태, 문어따위의 갖가지 어물들과 돼지고기볶음, 닭알찜, 산나물채” 등이 오르고,<sup>98</sup> 곱밥 반찬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재미튀기와 빨간 새우”가 담겼다.<sup>99</sup> 부유한 집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남방과일을 먹었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다양한 소비품에 대한 욕구는 ‘용성맥주’와 ‘평양맥주’를 구분하고, 내용만이 아닌 포장의 선호도를 따질 정도로 세분화되었다. 경제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는 일반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올라갔다고 한다. 시장의 활성화가 구매욕구를 자극해서 “눈에 차는 거 보면 사고 싶고, 또 누구네가 샀다면 우리도 사야지”하는 생각이

<sup>97</sup> 노귀남, “주민생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회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p. 348.

<sup>98</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p. 289~294.

<sup>99</sup> 김문창, 『열망』, p. 252.

들었다고 한다(H3,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소비욕구가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을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저기 어릴 때에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외에는 없었죠. 그때는 그냥 그저 쓰는 게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장사가 활성화 되면 서부터는 딱 눈에 차는 거 보면 사고 싶고, 또 누구네가 샀다면 우리도 사야지, 이런 것도 있고.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갔죠, 장사하면 서부터는. 장사 시작하고서부터는 생활 수준이 사실 좀 오른 거 같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한마디로. 옛날에는 고기 한번 사먹자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이 먹고 싶으면 사먹고, 뭐 반찬 여러 가지 해놓고 잘 먹으려고 하고, 수준이 많이 올라 갔죠.(H3,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전반적으로 살기가 한결 편해졌다. 시장의 모든 제품이 세분화되고, 자기제품이 좋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성맥주공장과 평양맥주공장도 경쟁을 하더라. 포장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좋아지고 발전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든 편하고 좋다.(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일부 소설에는 여성들이 개성적인 옷차림과 화장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서리꽃같은 뜨개문양을 단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상류계층의 여성<sup>100</sup> 뿐만 아니라 공장의 일반 노동자의 경우도 해당한다. 다음 소설의 한 장면은 단편적이거나 옷차림과 꾸밈새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개성을 드러내곤 하는 여성의 욕구가 표현되어 있다.

---

<sup>100</sup> 위의 책, p. 271.

《어느 직장ियो? 처녀라는게 화장두 안하구 일하던대루와?》 옥련은 만사람들앞에서 속옷까지 벗기우는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당하였다. …그때까지 옥련은 화장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써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그는 알지 못할 반발심을 가지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몰래 머리단장과 옷차림, 화장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가며 화장을 남들보다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한교대에서 함께 불을 때는 문속아주머니의 머리단장과 화장에 대하여서는 각별히 마음을 더 썼다. 그는 잔치날 곁에서 도와주어 화장이라는 것을 크게 해보고는 40살이 되도록 얼굴에 크림이나 바르면 다인줄 아는 여자였다. 그는 목욕을 하고나서 옥련이가 처음으로 자기의 화장품곽을 열고 강압적이다싶이 화장을 시켜주었을 때 자못 면구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삼크림냄새에다 머릿기름냄새와 향수내까지 이렇게 풍기니 머리가 핑 돌 지경이다.》 가열공을 하는 주제에 화장을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니? 집에 가서 밤만 자고나면 또 석탄먼지에 새까맣게 되겠는데.》 《아니예요. 그럴수록 화장두 더 잘하구 옷도 제일 잘 입어야 해요. 우리를 가열공이라고 절대로 깔보지 못하게.》<sup>101</sup>

최영학의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는 잘 차려입은 젊은 여성의 옷차림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봄날에 맞는 밝은 색깔의 꼭맞는 의복이며 굽높은 반짝거리는 신발이며 외국영화에서나 보았던듯 한 중절모 비슷한 모자며 손에 든 황금빛 사슬이 달린 가방이며… 한마디로 말하여 어느 영화에서 튀어나온듯한 화려한 옷차림이었다.<sup>102</sup>

<sup>101</sup> 위의 책, pp. 190~191.

<sup>102</sup> 최영학, 『우리의 집』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p. 7.

경제난 이후 사회적 계층 분화가 진행되면서 옷차림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지표가 되었다. 예컨대 지방의 대도시에서 돈주들은 ‘옷차림’만으로도 여타 주민들과 차별화된다. 이들은 고급천으로 만든 점퍼형 옷을 입고, 대체로 금테안경을 쓰고, 흰색 양말에다 외화상점에서 판매하는 구두를 신고 다니기를 선호한다. 무엇보다도 휴대용 돈가방은 이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지표”이다. 경제적 중상층가구의 고급 소비주의 실천은 새로이 형성되는 경제적 불평등체계 내에서 하층에 대하여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자기차별화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sup>103</sup>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의 소비 욕구는 “큰 집, 큰 차”(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번쩍 번쩍 빛나는 오장육기”(H3,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로도 표출된다. 북한에서 살림집,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등은 민법 제59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개인소유와 상속이 가능하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민들은 돈을 주고 넓은 개인주택을 사거나 자재를 구입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나 큰 집을 사는 행위가 표면화되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집을 바꿨다고 해야지 돈이 오고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한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주택을 교환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넓은 집을 소유하는 경향은 소설 속에도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집은 사실 살림집치고 여간 훌륭한것이 아니였다. 운병암은 7년 전에 공장가까이에 있는 두칸짜리 아파트와 이 집을 교환하여 들

<sup>103</sup>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pp. 213~215.

었다. 이집은 국가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이었다. 늙은 부모들을 모시고 살던 젊은부부가 로인들이 사망하자 그와 집을 바꾸었다. 그는 집을 교환하면서 국가집으로 법적수속을 하고 면식이 두터운 도시경영사업소 지배인을 통하여 보수계획에 넣어 증축을 하였다.<sup>104</sup>

살림방이 세칸이나 되고 목욕탕, 위생실에 창고까지 달려있는 이 덩치 큰 집을 광경두는 모든 사람들이 한창 곤란하게 지내던 지난해에 구역건설대와 교섭하여 지었다.<sup>105</sup>

잘 사는 집은 집안의 살림살이도 다르다. 그 집안의 생활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로 가전제품을 들 수 있다. “먹을 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는 아무래도 냉동기, 텔레비를 사자고 한다”(C7).<sup>106</sup> 장사로 돈을 좀 모든 사람들은 집에 “일제 가전제품, TV, 냉장고, 녹음기, 녹화기, 흡진기”(S3, 함남 출신, 2004년 4월 탈북) 등을 갖추어 놓는다. 소설에도 그러한 집의 세간이 묘사되어 있다.

저렇게 물 한방울 새지 않았으니까 집세간살이하는걸 좀 보라요. 아래옷방, 부엌할것없이 번쩍번쩍하게 꾸려놓고 랭동기, 색텔레비죤, 녹음기, 재봉기 없는게 없어요.<sup>107</sup>

국화꽃문양을 새긴 연한 풀색레자를 깔 옷방에는 십장생을 그린 양복장, 이불장이 한쪽 벽면을 가리웠고 옷색을 먹인 새까만 원

---

<sup>104</sup> 김문창, 『열망』, p. 15.

<sup>105</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p. 289~294.

<sup>106</sup>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향,”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p. 135.

<sup>107</sup> 변창률, “영근이삭,” p. 50.

탁우에 녹화텔레비존이 얹혀있었다. 안쪽에는 상아빛램등기가 은은히 벌우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광경두는 자체발전기를 사다 놓았다.<sup>108</sup>

소비생활의 팽창과 소비를 통한 사회적 지위의 과시 행위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또는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인들의 소비주의 행태는 소련시절 고위 관료들의 호화로운 소비와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전 시기 권력 계층의 소비유형을 따라감으로써 새로운 사회체제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09</sup>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소비의 양상은 권력에의 근접성 정도, 도시와 농촌,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등의 주거지역, 세대, 남녀를 구분하는 코드로 등장하였다.<sup>110</sup>

계획경제와 배급제 하에서 물자의 제한과 결핍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히 제한된 계층으로 한정시켰다. 시장의 팽창은 집단주의적 방식의 소비생활에서 억제되었던 차별화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형성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물질적 상징의 소유를 통해 확인하고 과시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욕망이 차별화된 소비행태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sup>111</sup>

---

<sup>108</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pp. 289~294.

<sup>109</sup> C. Humphrey, *The Unmasking of Soviet Life: Everyday Economies after Socialis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 62.

<sup>110</sup> Kevin Latham, *Rethinking Chinese Consumption*. C. M. Mann (ed). *Postsocialism* (NY: Routledge, 2002), p. 227.

<sup>111</sup> 북한에서 계층간 차별화된 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참조.

시장의 확장이 가져온 또 하나의 변화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서재진은 7·1조치 이후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개인주의에 의한 집단주의의 침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sup>112</sup> 김갑식·오유석은 정치적 의식에서 ‘복지관료적 신민형’과 ‘자력갱생형 준지방형’, 경제적 의식에서 ‘집단주의적 형식주의형’과 ‘개인주의적 실용주의형’, 사회문화적 의식의 측면에서 ‘집단주의적 평등형’과 ‘개인주의적 불평등형’의 의식의 단층들이 출현하였다고 보았다.<sup>113</sup>

현재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과 규범의 변화를 집단주의가 점점 개인주의, 배금주의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집단주의라는 기존의 지배규범에 모종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규범을 ‘실리주의적 집단주의’라 이름붙일 수 있겠다. 소설 속에서도 변화된 규범을 체현하고 있는 ‘실리주의적 인간형’ 들이 등장한다.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림화원의 “오후 5시”와 2004년에 발표된 변창률의 “영근이삭”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두 소설은 비슷한 인물 전형을 정반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림화원의 소설 “오후 5시”에는 타인과 집단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주인공 성희와 이해타산이 빠른 그의 친구 해련이 등장한다. 해련은 경제난 이후 시장 공간의 확대로 ‘개인주의적 실용주의형’ 태도가 확산된 북한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인간형이다. 그렇지만 소설 속에서는 교단을 떠난 후 외롭게 살고 있는 옛 스승을 어머니로 모시려 했던 한 남성, 갑자기 돌아간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스승

<sup>112</sup> 서재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통일연구원, 2004).

<sup>113</sup>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을 할머니로 모시겠다는 그의 딸, 우연히 그 일에 끼어들게 되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약속을 포기하고 이들을 마중나가는 성희 등 주요 등장인물 모두가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원가요, 타산이요 하는 말마디들을 곧잘 외우군”하는 해련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려는 성희에게 다음과 같이 그 일에 드는 ‘원가’를 따진다.

《인간생활에 원가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별스럽지만 무시해서는 결코 안돼. 네가 오늘 동분서주하는 목적은 우스울 정도로 단순하지 않니. 그게 뭐 인간의 운명문제나 큰 생산문제가 왔다갔다 하는것이냐. 너도 생각해보면 땡랑할거야. 이 좋은 일요일에 이게 뭐니…. 정주손님은 마중나온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집을 찾아가긴 가겠지? 물론 마중해주면 좋다는거야 누가 모를가.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말이다, 거기에 들이는 너의 공수는 얼마나 막대한것이냐. 말하자면 자동차를 생산할만한 원가라고 할 수 있지.》 해련이의 그 어마어마한 원가론에 압도된 성희는 아무런 반론도 가하지 못하였다. 머리가 다 뻥해졌다.

《귀한 손님이 온다고 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손님이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역시 원가를 타산하는것처럼… 극단한 경우에는 그 집에서 귀찮아하는 손님일수 있어. 생활에 무슨 일인들 없겠니. 그렇게 되는 경우 너의 그 성의의 <제품>은 <딸따리>도 못돼!》<sup>114</sup>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공수’와 ‘원가’를 따지는 해련과 같은 이해타산적 인간형은 이 소설에서는 부정된다. 대신 육개월간이나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연인과의 상봉 대신에 낯모르는 사람들의 상봉을 도와주는 선택을 하고, ‘원가’ 이상의 제품을 냈다며 감격스러워하

<sup>114</sup> 림화원, “오후 5시,” 『조선문학』, 2000년 1호, p. 67.

는 성희가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의 행복을 앞세우는 바람직한 인물로 설정된다.

반면 4년 후에 발표된 변창률의 “영근이삭”에는 ‘홍타산’이라 불릴 정도로 매사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고 긍정적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홍화숙은 탁아소에 젓먹이러 갔다가 작업총화에 늦게 참석한 분조원에게 “거름 한 차 못 실은 것은 물론, 그 시간에 트랙터가 태워 버린 기름값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따지고, 자신의 수첩에 작업내용과 노력공수를 정확히 기록하며, 자기 분조가 기른 강냉이의 알 수까지 세는 ‘이악쟁이’이다. 화숙은 ‘홍말쌩’, ‘홍타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해타산이 정확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 화숙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벼룩의 간두 뜯어내구, 좁쌀알두 쪼개자는” 계산적인 인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결국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는 “분조관리제의 원칙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분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아 새 분조장 자리에 추천된다.

북한은 1996년에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해왔다. 7-8명 단위의 분조별로 농사를 짓게 하고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분조에 대해서 자체 배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7·1조치 이후에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분조관리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이 보유한 토지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즉 농업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식 이윤 추구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sup>115</sup>

---

<sup>115</sup>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4), pp. 22~26.

‘영근 이삭’의 주인공 홍화숙은 실험적이거나 경쟁 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북한 농촌의 변화를 반영한 인물이다. 그녀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되 집단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고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영근 이삭’ 같은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또한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말하는 집단주의 담론이 집단주의적 가치 실현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사회와 인간의 변화 실태를 ‘예방적 변화’ 형태로나마 북한의 소설이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 2. 가부장적 가정의 균열과 붕괴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들의 삶의 환경을 악화시켰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의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고, 특히 식량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노동이 크게 증가하였다.<sup>116</sup> 경제난 시기에 “제일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sup>117</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사와 같은 부부간 협업과 남성의 가사 돕기 현상이 증가하였고 가정 내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sup>118</sup> 경제난 이후 여성이 생계유지 전담자로 부상하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 등을 분담하면서 가정 내 역할과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경제난에 민감한

<sup>116</sup>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2004), pp. 49~77.

<sup>117</sup> 안홍윤, “회초리,” 『조선문학』, 2001년 1호, p. 18.

<sup>118</sup>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pp. 49~77.

영향을 받은 중하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미경·구수미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난 이후 북한의 가정 내 역할과 가족관계, 의식의 변화는 가부장제 질서의 와해를 의미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의 엄격한 성별분업은 상당 정도 와해되었다.<sup>119</sup>

새터민들은 북한의 남성들이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여성들은 남편의 술심부름도 군말없이 다녀와야 하고 ‘억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서 벌어야 살 수 있어서 그러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C6, 함북출신, 2002년 2월 탈북). 북한의 전통적인 여성관을 문학작품 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예로부터 녀성이라면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것을  
《직분》으로 여겨왔으며 그래서 우리 녀성들을 두고 생활의 꽃,  
행복의 꽃이라고 불렀다.<sup>120</sup>

경제난 이전 시기에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배급체제도 그중 한 가지 요소가 된다. 즉 남편이 소속된 기업소에서 식량과 연료 등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가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가족의 생계유지에서 남편의 직장이 지니는 비중은 극히 감소되었다.

또한 경제난 시기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묶

<sup>119</sup> 이미경·구수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도시 여성의 삶과 의식,”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p. 217.

<sup>120</sup> 리라순, “녀성과 군복,” 『조선문학』, 2004년 8호, p. 57.

여있을 수만은 없었다. 직장에 매어 있거나 장마당에 나와앉아 물건을 팔기에는 체면이 중요한 ‘세대주’를 대신하여,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집에서 만든 국수나 떡 등의 먹거리나 수공업으로 생산한 일용품, 산에서 채취한 나물, 장작 등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짐을 걸머진 연약한 우리 여성들”은 “시련과 고난을 맞받아나갔다.”<sup>121</sup>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여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의 증대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 새터민은 경제난으로 인한 여성의 지위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난 이후에 국가배급이 없어지면서 남편의 권위가 추락하였다. 오히려 여인들이 나가서 사탕 팔고 술 팔고 했다. 여인들끼리 부를 만들어 몇 개 도를 건너서 물건을 많이 가져와 팔고,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했다. 오히려 여자에 의해 살고 남자는 걸그림, 멍멍이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여자의 장사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 남자는 권력이나 친분 등 발이 넓으니까, 남자들의 권력과 능력이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한번에 벌어들이는 규모가 크다. 어느 정도 능력 발휘하는 남자는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권위적이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여성현실의 변화는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었다. 장편소설 『열망』에는 “항상 자기를 집에서 모든 결론권을 가진 가장으로 자처하면서 남편을 눈섭아래에 떨구어보려는 안해”가 등장한다.<sup>122</sup> 여기서 아내의

<sup>121</sup> 위의 글, p. 25.

<sup>122</sup> 김문창, 『열망』, p. 29.

발언권이 센 까닭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남보다 못지않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이” 협동식당의 주방책임자로 있는 아내의 덕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군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직업을 가진 여성과 연구사, 학자와 같이 전문직 여성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리라순의 “행복의 무게”에서는 연구사로 남편과 함께 연구사로 근무하던 주인공 유경이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연구를 포기하려하자, 남편이 이를 만류하는 대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두뇌의 부족으로 연구사업을 포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학사인 당신이 모든게 힘들다고 사직한다면… 그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앞에 재세로 되는거요.》 유경은 반발적으로 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재세한다고요? 어쩌면 당신이 그런 말을… 저에게 연구과제만 있는가요? 지금은 시약, 실험기구, 연구조건만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때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 녀성이예요.》…

그래, 이것이 여성이 아닐까? 엄혹한 오늘날 가정살림을 도맡아 나서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들을 여전히 사회적의무에 충실하도록 떠미는 여기에 녀인들의 강의성과 아름다움이 있는게 아니겠는가.<sup>123</sup>

유경은 연구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자신은 “안해이기전에 과학자”라는 것을 깨닫

<sup>123</sup> 리라순,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 2001년 3호, pp. 24~25.

고 연구소로 돌아간다. 결국 그는 남편과 공동으로 촉매제연구에 성공하고, “사회앞에 자기의 큰 짐을 진 녀성이야말로 이시대의 가장 행복한 녀성”이라고 되뇌인다. 이 소설에는 직장생활과 가사일이라는 이중부담에다가 경제난이 가져온 생활고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북한 여성들의 현실이 들어있다. 소설은 북한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과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오히려 ‘시대의 짐’을 스스로 기꺼이 짊어지고 나감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여성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맹경심의 작품 “보내지 않은 편지”도 유사한 구도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남편에게 보내는 한 여인의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있다. 주인공 유경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권유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가정에 안주하였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싱싱한 나무줄기를 파먹는 년출”, “아늑하고 단란한 생활에 묻혀 지내는 조롱속의 새”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녀에게는 “한 가정의 사랑이 전부였고, 남편의 애무가 행복의 전부”였다. 남편에게는 결혼한 여성이 가정보다 자신의 직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생활의 정상궤도를 벗어난 성공”으로, “인생의 탈선을 배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유경은 뛰어난 연구자였지만,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말로 그녀를 가정에 안주시킨다.

당신의 논문을 다시 맡은 사람이야 자기 인생에 그 결실이 꼭 필요해서 그러겠지만 당신에게야 그것 아닌들 무슨 애로가 있소? 지금의 이 생활이면 만족하지 않소? 더구나 당신은 남편과 가정을 가진 녀성이요. 우리의 행복이야 바로 이 집에 있는게 아니겠소. 이미 논문이야 당신 이름으로 발표됐구 당신은 그것으로 처녀시

절을 빚내지 않았소? 이젠 당신의 리상이 달라졌소. 그러니 감상적인 흥분은 버리오.<sup>124</sup>

결국 유경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가정에 안주하지만, 대학동기인 준혁이 자신이 포기한 연구를 완수하기 위해 탄광으로 자원했고,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이 헤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한다. 유경은 자신의 개인적 행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남편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 탄광으로 향한다. 유경은 마침내 위험을 무릅쓴 실험에 성공하고, 유경의 열정에 감동받은 남편은 유경을 “내가 꾸러놓은 리기의 트랙에서 시들게 할 뻔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리라순의 “행복의 무게”에서는 가정에 안주하려는 여성을 남편이 사회로 이끌어 내었지만 이 소설은 이와 반대의 전개방식을 취한다. 남편은 아내를 가정에 안주시키려하고 아내는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선택한다. 이 소설은 유경이 남편의 생각을 바꾸어놓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지기는 하지만, 가정주부가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감행하면서까지 사회활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 영역에서 책임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앞선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한편으로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영역에 한정시키는 남성과 사회의 봉건적 사고를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근간에는 경제난 상황 속에서 일종의 ‘수퍼우먼’으로서 생계활동과 가사노동을 통한 가족들의 노동력 재생산을 모두 담보해야 하는 북한 여성의 현실이 놓여있다.

---

<sup>124</sup> 맹경심, “보내지 않은 편지,” 『청년문학』, 2004년 8호, pp. 29~30.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경제난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1년에 발표된 정현철의 “삶의 향기”가 있다. 이 소설은 여성관과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 안천주와 진취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들 영호 간의 대립 구도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자신의 결혼상대자를 고르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호는 안천주의 고루한 사고방식에 반발하게 된다. 영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소질을 살려 그림을 그리고 싶어했으나, 내조를 하느라고 재능과 희망에 맞지 않는 일을 했고, 아내의 내조 덕에 안천주는 젊은 나이에 박사논문을 제출하고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영호의 배우자 선택 문제로 부자가 갈등에 휘말리게 된 어느 날, 안천주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관을 돌아보게 된다. 교수인 안천주는 영호가 어릴 적에 미술박물관 관람을 가자는 부탁을 “한가한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고, 아내에게는 자신의 원고를 정리하게 했던 사건을 떠올린다. 이때 아들은 “왜 사회의 몫은 생각지 않으시나요?”라고 항의했고, “네 어머니도 직장에 나가서 사회적인 몫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에 “하지만 어머니의 재능과 희망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요.”라고 대답하였다.

영호는 자신의 결혼 문제로 아버지와 부딪히게 되는데, 여성의 역할과 바람직한 부부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일기를 통해 드러난다. 영호는 “매 사람에게는 자기의 몫이 있으되 그것은 가정의 몫과 함께 사회의 몫이다.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인 이 몫은 시대와 조국 앞에 엄숙히 지니게 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아니 되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도리”라고 생각한다. 가족 구성원의 개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영호는 여성에게도 “사회앞에 지닌 제 의무”가 있으며, 남편의 직위, 명예, 성과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여성들은 “시대의 수치”라고 말한다. 또한 여성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런 여성을 좋은 아내라고 칭찬하는 “뿌리깊은 관념”을 비판한다. 그런 사람들의 결혼은 사랑의 승화가 아니라 “예속이며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영호의 일기에 집약되어 있다.

평등은 사랑의 가장 견고한 기초이다. 과연 지금 어느 누가 《안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를 진다.》는 나쁜 나뭇레 웅변전과 남편은 안해를 지배해야 한다는 3강 5륜의 봉건유교사상이 오래전에 벌써 휴지조각이 되어 시대밖으로 내버려졌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아직도... 명실공히 부부는 어느 한쪽이 자신을 잃고 또는 희생시켜 하나될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도와 더 커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건설된 가정, 창조의 제뫼을 바치려 열렬한 사랑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피타게 노력하고 있는 가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튼튼히 하는 충실한 세포로 될수 있는 것이다.<sup>125</sup>

아들의 비판은 아버지에게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호상성이 없는 일방의 내조”의 불평등성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봉건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어머니와 종속적인 부부 관계를 당연시 하는 사회 통념에도 비판의식을 들이댄다.

여기에 어머니의 책임은 없는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만도 우리 가정을 돌이켜볼 여지가 많다... 나는 나의 모범으로 부모들

---

<sup>125</sup>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 1991년 11호, p. 45.

에게 가정에 대한 관점을 우리 시대의 높이에서 검토할 기회를 주고 싶다.<sup>126</sup>

이 소설은 지금까지 발표된 북한 소설 중 가장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가부장제적 가족관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수령과 인민, 당과 인민 간의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가부장성으로 향하지는 못한다. 가족 내 가부장적 권위의 해체는 인민 개개인의 개성 발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 가장의 권위주의와 봉건적 여성관, 가족관에 대한 비판은 가정을 혁명화함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가족들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최근의 북한 소설에는 남편이 식사준비나 빨래 등 아내의 가사노동을 돕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가끔씩 일을 돕는 것을 넘어서 “끼니 준비를 도맡아하는” 남편도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소설의 남성 주인공들이 그런 인물들이다.

작업반일로 항상 바빠 하는 안해를 대신하여 저녁끼니준비를 도맡아 하다 싶어 하는 정석우는 옆집에서 한사발 가져다준 붕어까지 짹짹 지저 놓고 기다렸다가 맛있게 식사를 하는 안해를 보는 것이 흐뭇한 김에 그말을 건넸다.<sup>127</sup>

옥선은 소원대로 유치원교양원이 되었고 남편이 행주치마를 걸치는 회수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도 안해의 불 같은 마음을

---

<sup>126</sup> 위의 책, p. 47.

<sup>127</sup> 변월녀, “푸르른 대지,” p. 50.

알고 있는 남편은 불평 한마디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자질을 하곤 했다.<sup>128</sup>

언제한번 세대주로서 안해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 본적 없는 남편, 연구사인 안해를 위해서 작업복 같은것은 의례히 제 손으로 빨아 입는 것으로 여겼고 가끔 아이를 찾아 오거나 부엌일을 할 때도 얼굴을 흐린적 없는 남편이었다. 이러한 남편에게 습관되어 어느 한순간에는 자신이 녀성이라는것도 잊고 같은 동등한 연구사의 자격으로서 남편이 며칠간 살림을 떠맡는것쯤은 응당하게 여겼던 유경이었다.<sup>129</sup>

북한에서는 여성을 사회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여성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탁아소를 광범위하게 설치함으로써 아동양육을 사회화하는 등 일정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가사노동의 사회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주거조건하에서 가사노동의 절대적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은 온전하게 여성의 몫이라는 봉건적 의식이 팽배해있어 가정 내에서 부부간 가사노동의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여성들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남성에 의한 가사노동 분담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설을 통해 볼 때 아직도 부부관계나 가사노동의 분담 등에 대한 관점은 이중적이다.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가사일을 돕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영역은

---

<sup>128</sup> 윤경찬, “푸른 꿈,” 『조선문학』, 2003년 2호, p. 71.

<sup>129</sup> 리라순, “행복의 무게,” p. 33.

가정이 아닌 직장이며, 아내는 남편과 대등한 존재라기보다는 남편을 따르고 높이 받드는 존재로 그려진다. 2004년에 발표된 리희남의 소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러한 이중적인 관점이 여러 인물을 통해 나타난다.

남편 박수남은 “일부 덜된 녀석들처럼 자기 안해한테 말질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고” 아내에게 경어를 쓰면서 아내를 무척 아끼는 사람이다. 그는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밥과 빨래를 하곤 한다. 친구가 그것에 대해 놀려도 그는 아내를 돕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런 박수남에게 친구는 “안해를 그렇게 금싸래기처럼 아껴선 뭘하겠소. 안해행실은 다홍치마적부터 그루를 얹힌다는 말이 있잖소”라며 “안해의 치마폭에 너무 얹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박수남의 아내는 어떤가? 친구의 시선에서 본 그녀는 쌍꺼풀진 눈이 언제나 생글거리고, 눈 때문인지 부드럽고 싹싹한 성미 때문인지 그녀를 대하는 사람마다 즐거움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여성성 넘치는 전통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돕는 남편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찼찌해지기 시작했나요? 집안일은 이 내무대신의 주관하에 진행되는거야요. 당신은 그저 굴착기에만 정신을 쏟으라요.”라고 대꾸한다. 그녀의 미덕은 “남편공대가 지극한것”이며, 남편 공대의 증거는 “점심과밥에 정성들여 싸준 갖가지 반찬”이다.

박수남의 아내는 고장난 굴착기를 살려내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노력하느라 가족의 생계를 챙기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내작업반을 꾸려 염소를 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굴착기를 살리라”는 것이었으며, 수남은 아내가 만들어준 장갑과 꽃방석을 안고 굴착기 운전대에 오른다. 수남의 아내에게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시대가 요구하는 강인하고 의지력 있는 여성상이 중첩된다.

맹경심의 “보내지 않은 편지”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리희남의 소설에서 여성들은 배급의 중단으로 인해 남성들이 보장하지 못하는 생계의 영역을 곳곳하게 짊어지고 나감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는 남성들이 사회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꽃방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 소설에서 여성은 가정에 안주하여 “제 살궁냥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헌신하여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그러한 헌신은 남편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 이러한 관점은 수남의 아내가 즐겨불렀던 애창곡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그대는 알거예요/내 왜 그대를 웃으며 따르는지/그대는 알거예요/내 왜 그대를 웃으며 받드는지/나와 하나로 되어준 그대 모습/내 가슴 적셨어요/내 어찌 한번만 폼다 사라지겠나요/외로와도 슬퍼도 그대 심장결에/눈비뿌려도 그대 심장결에/언제나 웃으며 피어있을래요.<sup>130</sup>

여기에서 ‘그대’는 남편이자 조국이며,<sup>131</sup> 여성은 여전히 남편과 조국을 ‘따르고’, ‘받드는’ 것을 통해 사회적 존재가치를 부여받는다.

최근 북한 소설에서는 이혼 문제도 종종 작품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 이후 경제활동 참가로 인하여 여성의 가정내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여성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고, 장사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식량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다른 지역을 떠돌

<sup>130</sup> 리희남,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p. 40.

<sup>131</sup> 고인환, “남만적 신념과 여성의 위상,” 『문학수첩』, 제2권 제3호(2004).

거나, 중국 등 제3국으로 탈북하여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또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 등이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기에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여성들이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이혼은 허락하되 이혼을 제기한 쪽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sup>132</sup> 경제난에 따른 가정해체와 이혼율 증가 현상에 대해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대체로 무산이나 중국에 가거나 하는 여자들이 많다. 남자들이 자동 이혼되어 혼자 산다. 국가에서 여자가 확실히 중국갔다는 것을 알면 자동 이혼시켜준다. 몇 년이 지나도 안 오거나, 그 사람이 중국 가는 것을 봤다는 보증인이 있으면 담당경찰에게 가서 보증 받으면 이혼된다. 대흥단군 같은 경우 크게 이혼하는 경우는 없는 데, 무산이나 회령보면 남자들이 실제 돈을 못 벌고 한심하다.(C4, 함북 출신, 2003년 11월 탈북)

그전에는 이혼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도강을 하는 사람이 많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돈만 있으면 이혼을 빨리 되게 할 수 있다. 판사에게 돼지 한 마리값 정도면 이혼이 빨리 된다. 도강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 이혼이 잘 되니까 이혼 비율이 높아졌다.(S1, 평양 출신, 2003년 말 탈북)

부모들이 장사하면서, 부부간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장사를 다니면서 바람을 피는 사람이 많아서 이혼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7·1조치 이후에 늘어났다.(Y1, 함북 출신, 2004년 6월 탈북)

<sup>132</sup>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p. 38.

소설 역시 가족 해체와 이혼 증가라는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004년에 발표된 김혜성의 “열쇠”는 생산 원료를 훔쳐 술을 사먹고 공장의 장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다 파손시켜 법적 교양을 받게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갈등 끝에 새사람이 된 남편을 용서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을 줄거리로 하여 여성의 자의식과 이혼 문제, 법적 교양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아내가 이혼을 두고 고민하는 장면에는 “녀성답게, 안해답게” 처신해야 한다는 사회 통념과 “소박하고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 간의 긴장관계가 드러난다.

안해들은 혼자서 속을 썩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 남편의 결함을 감추고 산다. 아마도 일심동체라는 부부의식, 남편의 명예이자 자기의 명예라는 녀성적인 속성이 작용해서일것이다. 자기 남편의 결함을 들고다니는 녀인은 안해이기전에 녀성이 아니다. 허나 나는 지금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남편을 타매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침을 뱉고 돌아섰다. 과연 내가 녀성답게, 안해답게 옹게 처신하였는가. 나도 녀성이다. 나도 다른 녀인들처럼 살고싶다. 그저 소박하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고싶다. 그러나 남편은 나의 이 소박한 소원마저도 짓몽겠다. 희망과 기대, 꿈조차 깨버렸다.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그와 살아야 하는가? 왜 결심을 못내리는가? 사회적비난이 두려워서? 아니,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동정할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없게 될 아들이가 불쌍해서? 그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게 낫다. 아니다. 나는 모든것을 각오했고 결심도 확고하다. 남은것은 행동뿐이다!<sup>133</sup>

---

<sup>133</sup> 김혜성, “열쇠,” p. 68.



그녀는 사회적 통념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선택하고 별거를 단행한다. 이는 경제난 이후 여성이 가족의 실질적 생계를 담당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여성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법적교양을 받고 돌아와 성실한 모습으로 변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이제 ‘나’는 변화한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 이는 ‘용서해야 마땅하다’는 대의명분과 여성의 자의식과의 갈등이다.<sup>134</sup> 결국 주인공 여성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정이 한길로 이어지지 못한것은 모두 나 때문이다. 첫 사랑때 처럼 그를 믿었더라면, 그 믿음으로 그의 가슴속에 불을 지폈더라면 쓰라린 과거가 있었겠는가. 사내의 가슴에 불 하나 지피지 못한 내가 무슨 여성이란 말인가!”라며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편을 받아들인다. 어렵게 썩튼 여성의 자의식이 교화대상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또다시 묻혀버리는 순간이다.

이보다 앞서 2000년에 발표된 최성진의 “지워지지 않는 글”도 여성의 이혼과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135</sup> 이 소설의 화자인 류선옥의 이혼 사유는 소설 “열쇠”의 경우보다 모호하다. 선옥은 “별치 않은 금전상의 문제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언쟁을 벌인 끝”에 남편과 결별하고 돌도 안 된 아기를 업고 친정으로 돌아온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혼의 원인은 삶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이다. 무역일군인 남편은 학자인 선옥의 아버지에 대해 “동무 아버님은 그래도 이름난 원사 선생님인데 사는건 왜 그렇소? 너무 소박하더구만.”이라며 비웃음조

<sup>134</sup> 노귀남, “주민생활,” 『북한의 사회문화』, p. 411.

<sup>135</sup> 최성진, “지워지지 않는글,” 『조선문학』, 2000년 7호.

로 말한다. 돈에 대한 남편의 생각은 “나라에 돈을 많이 벌어들여 오면 좋은거지”라는 정도이다. 생활은 말할수 없이 유족했지만 선옥은 “행복하지 못했다.”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부모님들께 죄스러워하는 선옥에게 아버지는 “사회와 집단에 한번의 빛으로 보태진다면 사람은 행복해진다”며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는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어 유언을 남긴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이며 축복”은 “행복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옥은 돈을 중시하는 남편과 살면서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그런 선옥이 이혼을 선택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욕망의 표출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옥의 행복찾기는 여성의 자의식과 욕망의 온전한 추구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선옥은 아버지의 말뜻을 되새기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너는 행복해 질게다. …애야, 너는 이답에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라! 우리 나라를 빛내이는 과학자가 되거라!”라고 되뇌인다. 여기에서 과학자는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알았던 자신의 남편과 대비되는 상징이자 한평생 학자로 성실하게 생활한 자신의 아버지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옥은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찾기 보다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는 것, 즉 역경을 딛고 혁명과 건설을 일구어냈던 기존 세대의 가치관을 계승하는데에서 찾고 있다.

이 소설 역시 가부장적 가정의 균열된 틈을 비집고 터져나오는 여성의 자의식과 욕망에 대한 자각과 인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소설과 차별성을 보여주지만, 그 귀결점은 여성 자신의 자아 추구가

아닌 '사회주의 대가정'이 부여하는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 변화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한 사고방식이 변화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연애결혼이 증가하는 추세가 1990년대 이래로 나타나고 있다.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예전에는 연애를 할 때 “남의 눈에 떨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하며,”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한다(S3, 함남 출신, 2004년 4월 탈북). 이러한 경향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 경제난 시기에 장사나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중국을 비롯한 국외지역으로부터 ‘황색바람’이라 부르는 개방 풍조가 유입, 확산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추세는 소설에도 반영되어, 최근 북한 소설에는 남녀간의 애정이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출달아 날아온 편지는 번거로운 성심의 심정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댔다. 지금 잠자리에서 두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지만 충렬의 모습은 그의 망막을 그득히 채우며 한시도 사라지지 않았다. ...성심의 가슴은 불뭉치를 안은 듯 했다. 얼굴이 또다시 활활 달아오르고 심장은 급스레 두근대었다. 도끼날에 통겨나는 얼음쪼각들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림판에 마주앉아 붓질을 하던 충렬의 모습이며 양어장의 철썩철썩 꼬리치는 산천어들이 눈앞에서 번갈아 어른대었다.<sup>136</sup>

---

<sup>136</sup> 김택룡, “고향,” 『조선문학』, 2003년 11호, p. 23.

그때부터 금옥의 눈앞에는 온통 그 산골청년의 모습뿐이었다. 그가 꼭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한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그 초가를 새벽처럼 아무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날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생각이 옴했던지 어느날 금옥은 물을 길러 나갔다가 빈 동이를 그대로 안고 들어온적도 있었다. 텅빈 물독은 처녀의 이상스러운 행동이 놀랍다는듯 입을 향 벌린채 그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그제나 처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빈 물독이 누군가를 기다려오는 자신의 텅 비어있는 마음처럼 생각되었고 다음아닌 그 산골청년이 자기의 허전한 마음속 공백을 가득 채워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sup>137</sup>

옥련은 새물거리며 재촉했다. 그에게는 팔씨름에서 이기고 지는것이 벌써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보고싶었으며 그의 온기를 감수해보고싶은 마음이 더 불같았다...옥련은 팔씨름이 끝났을 때 철룡을 고마운 듯이 쳐다보았다. 그리고 교대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의 손에 쥐여졌던 엄지손가락과 손등을 몇 번이나 몰래 매만지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지 몰랐다...비록 석달도 되지 않은 나날이었지만 옥련의 불같은 마음은 철룡을 자기의 세계에 깊숙이 끌어들이는데 모자라지 않았다.<sup>138</sup>

이전 시기의 소설이 남녀 간의 만남을 다루는 데 있어 사상적 지향의 일치를 중심에 두었다면, 1990년대 이후의 북한 소설은 구시대의 동지애적 애정, 헌신적 사랑, 신념의 일치, 감정과 욕망의 복합체로서의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sup>139</sup> 특히 “사랑하는 대상의 언어와 행동, 용모와 육체에 다 잇닿아있는 이를테면 다변수함

<sup>137</sup> 홍영남, “푸른언덕,” 『조선문학』, 2003년 11호, p. 63.

<sup>138</sup> 김문창, 『열망』, p. 137.

<sup>139</sup> 오태호, “북한식 사랑법을 찾아서-2000년대 북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3』 (서울: 청동거울, 2004).

수”<sup>140</sup>와 같은 사랑의 감정을 풍부한 묘사로 풀어내고 있는 소설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사적 욕망의 분출이라는 점에서 여성 문제를 다룬 소설들과 연속선 상에 있다. 또한 이 소설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복합성과 구체성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남녀간 사랑의 문제를 계몽의 주제에서 구체적 일상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990년대 이전 시기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간의 사랑의 감정과 욕망의 표출이 없었을 리는 없다. 주민에 대한 공적인 교양 기능을 지니는 북한 문학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적인 욕망과 개인적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

<sup>140</sup> 림화원, “오후 5시,” 『조선문학』, 2000년 1호, p. 53.

V

# 사회적 관계 측면의 주민생활



## 1. 계층의 분화와 이동

1990년대 공식적 계획경제의 약화와 배급제의 기능 정지는 시장적 질서의 확대를 가져왔고 주민들은 시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시장과의 연계방식에 따른 가구별 수입의 차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적인 계층분화를 가져왔다.

청진, 신의주, 혜산 지역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마당의 활성화가 진척된 1990년대 후반에 거의 동일한 양상의 경제적 계층 분화가 발생했다. 도시를 통해 반출입되는 물자유통과정에 대한 접근 정도에 따라 주민들의 장마당 참가방식과 개별 가구의 수입이 크게 달라졌다. 예컨대 상층에는 외화벌이 일꾼들과 이들과 연계된 대규모 되거리 장사꾼들이 포함된다. 중간층에는 식량이나 공업품 도매 되거리 장사꾼과 소수의 타인 노동력을 항상적으로 고용하는 가내 임가공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하층에는 대다수의 영세한 가내 임가공 종사자, 장마당 장사꾼, 영세한 ‘행방’ 장사꾼이나 노상음식장사 ‘딸딸이 군’ 같은 일용 노동자들이 속한다.<sup>141</sup> 장마당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의 분화는 다음과 같은 새터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계층의 장사꾼인지 구분이 된다. 장마당에 앉아있는 터장사꾼은 여기저기서 물건을 받아 하루 종일 팔아서 약간의 이익을 챙긴다. 또 다른 장사 수법은 자기 돈이 많지 않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보다 큰 장사꾼인 되거리 장사꾼에게 돈을 주어서 담배를 사와서 판다. ‘기증기’가 되거리들에게 주는 것이다. 2002년

<sup>141</sup>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pp. 131~132.



부터 조직화, 치밀화되었고,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합법화되면서 가격이 상승되면서 장사를 할 환경이 되었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북한에서 계층은 주민들의 성분에 따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sup>142</sup>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증언에 기초해서 현재의 주민성분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일반군중, 교양군중, 료해군중, 감시군중의 여섯 부류로 재분류하기도 하였다.<sup>143</sup>

경제난 이후의 경제적 계층의 분화는 성분에 의한 분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출신성분과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결망, 개인의 시장친화적 감각과 경험 등 복잡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경제적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이 경제적 계층을 구분할 때 활용하는 주요 척도는 가구의 소비생활 양상이다. “먹는 것은 통강냉이, 풀어진 국수 몇 젓가락, 소금국이고, 기름 한 방울도 없는”, “아무것도 없고 한심한” 사람이 최하위층에 속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주민들은 “밑천도 없으니 까 몇 백원 가지고 국수장사 외에는 다른 장사도 못”하며, 세간이라고는 “그릇 몇 개”가 고작이다(S3, 함남 출신, 2004년 4월 탈북).

반면 상위계층은 자기 가구가 소비할 식량 뿐만 아니라 여분의 식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을 비롯한 각종 고급 세간과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소설 속에도 고난의 행군기에 “한끼도 배를 굶아본적이 없이, 더 잘 먹었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던”

---

<sup>142</sup>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54.

<sup>143</sup>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p. 167.

상위계층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sup>144</sup> 다음과 같은 새터민 구술을 통해서도 상위계층의 생활이 소비생활 측면에서 다른 계층과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어딜 꼭 갈 때에는 반드시 신는 물자가 쌀이에요. 최소 20kg부터 30kg 정도는 쌀 포대를 하나 꼭 신고 가. 그 집에 가서 하루를 내가 묵든 잠깐 들려도 쌀은 반드시 넣어요. 쌀 그리고 맥주 박스,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 박스, 그 다음에 과일 박스, 물고기 박스. 그건 가감이 되지만 쌀은 무조건 넣는 거예요. ... 나머지는 다 처분을 해요. 친구들 시켜가지고 처리를 해달라. 그니까 달라로 바꾸는 거예요. ... '돈주'는 쓰는 제품이 달라. 상점에서 사는 제품하고 일반 시중에서 나가서 사는 제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식품도 다 그런 것을 사고 그러니까. 가전제품, 그니까 집에 들어가도 아, 이 집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외화 제품 쓰는 집에 들어가면 벌써 느낌부터 다르니까.(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사이에 식량 비축분량이나, 소비재 보유 수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중간계층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경제난 이후 경제적 계층의 형성과 이동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새터민들의 구술을 통해 경제적 계층 형성의 몇 가지 방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제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정지는 기본적인 생활안전망의 파괴를 의미하였고, 새로운 시장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빈곤층의 증가를 가져왔다. 배급제를 비롯하여 경제난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유지되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로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직장생

<sup>144</sup> 백보흠, 『라남의 열풍』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p. 346.

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개인적 노력 없이 생존과 안전,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그러나 경제난은 각종의 사회안전망의 작동을 정지시켰고,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생존경제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화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먼저 눈을 뜬 사람들은 경제적 상위 계층을 형성해나갔다. 북한에서 ‘돈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경제난 이후 진행된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한 새터민은 “저건 돈주네 집이다, 저건 바닥네 집이다, 이렇게 딱 나누어진다. 재일국민, 화교, 중국사려행자, 국내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등이 주로 돈주가 된다”고 말한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장사에 일찍 눈을 뜬” 사람이거나, 무역일군과 같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기 쉬운 사람들이 ‘돈주’가 되었다(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고위급 당 간부와 안전부 관료, 차를 이용해서 장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간부들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자기 뼈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다(C4, 함북 출신, 2003년 11월 탈북).

경제난 이후 북한의 경제적 계층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암시장 경제와 간부의 공공권력 유착’이라는 새로운 북한식 정경유착 현상이다.<sup>145</sup> 즉 당 간부 등 정치적 지배 계층이 시장 확대 과정에서 정치적 권력을 경제적 자산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권력기관 간부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권을

<sup>145</sup> 정우곤·이주철,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p. 186.

누려 왔으나 경제난 이후에는 당원 자격 획득과 같은 정치적인 진출보다 경제적 성공이 중요시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의 보장이 없는 자본의 축적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돈주들은 당이나 안전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에 인맥을 만들어서 지배권력과 공생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기관의 집중검열을 피하기 위해 고위간부들에게 명절의 선물공급 사업을 조직하거나 원군사업 등에 막대한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돈주가 자신의 사업에 권력기관의 실력자들을 직접 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상층부는 정치적 신분체계 내의 지위 상승을 위해 경제적 투자나 사업수익배분을 통한 ‘공생적’ 관계 설정에 적극적이다.<sup>146</sup> 정치적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돈주들은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 예전에는 당 기관, 보위부, 안전부 사람들은 장사를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서 뺏어 먹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뺏어먹기보다 내가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권력층이 개입할 경우에는 열차나 화물차 등의 대용량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한두개 도를 넘나들면서 대량으로 물자를 운송한다고 한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경제적 자본과 정치 권력의 결합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규모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권력과 경제적 자본의 결합을 통한 지배 구조의 연속성은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중의 계층 변동의 특징과 유사하다. 러시아의 경우 신흥 자본가들은 주로 과거 사회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에 해당

---

<sup>146</sup>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pp. 207~210.

하는 국가나 당기구의 특권계급과 지하경제출신이었다. 노멘클라투라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를 이용하여, 지하경제출신들에게는 금지되어있던 매점매석이나 재판매, 기타 범죄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이들에 의해 축적된 부는 개혁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기에 신속하게 사기업 설립으로 이어졌다.<sup>147</sup> 새로운 러시아에서 경제적 자본은 다시 정치적 자본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되었다.<sup>148</sup>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상위 계층과 당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력의 결탁과 중첩은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가 가져올 계층질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소련의 체제변환 과정에서 노멘클라투라가 새로운 정치, 경제적 지배층으로 순조롭게 변모 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귀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교사, 의사, 사무직 등 인텔리 계층의 하향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과거에는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지위가 높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텔리 계층 중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반(反)사회주의적이라고 인식하거나 사회적 위신 때문에 일찍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서 경제적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교환가능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고,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존력 또한 부족했다. 이들은 “고지식하고 주어진 주제 범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아서” 시장 중심의 체제에서 쉽사리 적응할 수 없었다(K7, 함남 출신, 2003년 11월 탈북). 고난의 행군기에 가장 많은 아사자를 냈

<sup>147</sup> 조한범,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통일연구원, 2005), p. 61

<sup>148</sup> 김창진,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노멘클라투라,’”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1997), p. 163.

던 집단 중의 하나도 인텔리 집단이었다. 그 결과 현재에는 인텔리 집단의 직업적 위상도 크게 저하되었다. “예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 공업대학을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바로 취직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이과 계층의 값이 폭락해서 박사도 산에 가서 나무하고 쌀이 없어 책도 팔아야”(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한다는 한 새터민의 증언은 인텔리 계층의 하락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터민들은 경제난 이후 시장적 질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인텔리 계층의 생활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함흥시 같은 데는 역 터미널에 나와서 책을 내놓고 번역을 해준 다라고 그래요. 책을 내놓고 번역을 하는데, 애들이 와서 놀리는 게 헝크 꼬리에 붙은 상표 이게 뭐라고 썼냐라고. 그리고 그거 번역해주면 애들이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이게 뭐냐라고 알려달라 하든 박사가 척보고 뭐다라고 하면 그냥 가면은, 그런 신세가 어디 있겠어요. 돈 못받는 거는 못받더라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바보가 되잖아요.(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

의사들 생활이라는 게 정말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선배 의사들도 의사 때려치우고 일반 그냥 직장으로 장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1990년도 전반까지만 해도 병원에 약품들이 들어와요, 조금이나마.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의사들한테 배분을 해주거든요. 이거로 너 한달 동안 이걸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약품이라는 게 한달은 커녕 자기 가족도 치료하기 힘든 약이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그 약이라도 빼돌려가지고 팔아먹고, 아는 사람 주고 대신 쌀을 조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살았는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전혀 이제 공급이 안 되었어요.(C5, 황해남도 출신, 2000년 9월 탈북)

인텔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층의 해체와 사회적 계층의 양극화 역시 구사회주의 사회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수의 부유층 형성과 계층구조의 전반적 하향화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인텔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층의 해체가 두드러졌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초기에 러시아 사회의 양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체제전환 초기 2년만에 러시아 주민의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의 차이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체제전환 과정의 시작과 아울러 중간층의 규정에 있어 교육 수준과 문화적 가치와 같은 사회주의의 기준들이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고, 화폐적 가치의 생산능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했다.<sup>149</sup> 중간 계층의 해체와 계층의 양극화 경향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계층 구조 변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텔리 계층의 하향이동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반 노동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들 계층의 직업위신 증대로 인한 ‘신중간 계층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서재진에 의하면 시장 진입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성취는 성분차별정책 하에서 누적된 불만으로 인한 비공식부문 선점과 물질적 가치 추구의 결과이다.<sup>150</sup> 노동자들은 식량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보장제의 파탄으로 인해 생활방편으로 이차 경제부문에 접근하였던 것이지만, 이들이 장사와 무역을 통해 기술자나 교원 등 인텔리들과 생활수준을 역전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sup>151</sup>

<sup>149</sup>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pp. 33~64.

<sup>150</sup> 서재진, “북한의 성분차별 정책이 시장요소 확산에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17권 2호 통권 44호(2005).

<sup>151</sup> 정우곤·이주철,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과 도시 계층구조 재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pp. 174~176.

그러나 노동자 계층 중에도 “꼬박 꼬박 출근하고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향상되지 못하였다(H3,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배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7·1조치 이후 물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임금 이외의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더 하락했다(S3, 함남 출신, 2004년 4월 탈북; C4, 함북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즉 노동자들 속에서도 시장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과 상행위 개입 정도에 따라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산과 재생산 활동이 시장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출신성분, 사회적 연줄망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 개인의 시장적응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계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과 개인적으로 시장적응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상위 계층을 형성하였으며, 이들 간의 결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텔리 계층의 하향화와 함께 대다수 가구들이 여전히 경제적 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로 하층의 궁핍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장적응에 성공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간계층 형성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2. 사회적 통제의 이완과 복원

경제난 이후 국가배급제의 약화는 수령의 가부장적 재분배 정책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주민들의 ‘조직화된 의존관계’를 약화시켰다.<sup>152</sup> 배급제는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통제만이 아니

<sup>152</sup> 박형중 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도서출판 오름, 2003), p. 37.



라 주민들을 직장과 주거지에 고착시키고 지리적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배급제는 무상교육제, 무상의료제와 함께 국가와 당이 주민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핀다는 온정주의적 의식을 불어넣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sup>153</sup>

경제난에 의해 강요된 독자적 생존방식의 추구는 이러한 의식에서 일정정도 독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장사 등을 통해 개인적 생존을 모색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직장 결근이 불가피해졌고, 지방간에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 정기적인 정치교육과 생활총화에도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타지로의 이동과 잦은 왕래로 인해 공식적 통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유입되고 유통되었다.<sup>154</sup> 결과적으로 경제난 이후 당과 근로단체의 조직생활과 정치교육이 이완되는 등 기존의 주민통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sup>153</sup> 무상교육제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관해서는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2호(2004) 참조.

<sup>154</sup> 다음과 같은 새터민의 증언은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정보와 사고를 접하게 되고, 그것이 의식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는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우리 숙담에 그런 뭐, 나다니는 머저리가 았은 영웅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저리라도 나다니면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하는 게 많으니까요. 저도 나다니면서 장사 다니면서, 전국 각지, 서해쪽으로 휴전선 나가서 뼈라를 봤거든요. 처음으로 인제 그것도 보고. 우연히 어떤 집에 장사갔는데, 그 집에 내가 좀 잘 아는 집이거든요. 혼자 있게 됐는데, 그 라디오 주파수를 이케 막 돌리다가, 홀 듣는데, 대북 방송 탁 트는데 … 북한 정권을 완전히 군부독재정권이라고 딱 그러더라구요. 그 처음으로 난, 김정일 그때까지도 전혀, 우리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난 의심 한번도 못하고, 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군부독재정권, 국민을 삼백만이나 굶어죽이고도, 응, 아직도 군부독재, 완전히 철창 없는 감옥이라고 막, 이러한 표현을. …그 고조, 콧 충격이, 순간적으로 충격이 컸죠. …우리 북한 체제가 무슨 모순점이 있구나.”(H5, 함남 출신, 1997년 7월 탈북)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정치교육을 비롯한 각종 조직활동과 행사 참석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한 새터민(K5, 함북 회령출신)은 예전에는 80-90%에 이르던 동원과 정치교육 등의 행사 참석률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50%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한다. 이 수치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경제난을 겪으면서 공장에서 실시되는 정치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김일성 사망 직후까지만해도 “굶어 죽으면서도 생활총화에 참석했으나,” 그 후에는 당총회도 제날짜에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L1, 평북 철산출신). 생활총화도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의 불참자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매우 낮아졌다. 다음과 같은 새터민의 증언은 생활총화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에서 사람들에게 회의를 나오라고 할 때 회의를 못 간다거나 이전에 배급을 줄 때처럼 안 나와도 그렇게 강하게 회의에 나오라고는 못 하더라고요. 이전 같으면 그런 행사에 안 참가하면 큰 비판거리고 큰 일이 났는데, 안 참가하고 먹을 거 없다고 마당에 장사하러 나가고 그러는데 뒤에서 비판하고 그러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러지 못 하더라고요.(L2, 함북 무산 출신, 2003년 8월 탈북)

주민들의 정치교육 수용 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다. “평상시에는 힘들고 해도, 이런 강연을 들으면 신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했다”는 사람(K5, 함북 회령 출신)이 있는가 하면, 정치교육은 “저 하등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람(H2, 함북 새별 출신, 2003년 탈북)도 있다. 당원이나 열성노동자의 경우에도 “독보를 들으면서도 장사나 집 생각 등 잡생각을 하는” 경우(S4, 함북 온성 출신)

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비판을 무릅쓰고 학습에 참가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하였다(K2, 함북 청진 출신, 1998년 12월 탈북). 한 새터민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월 1회 공장 밖의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학습회의 경우 30% 정도가 학습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도망쳤다고 한다(K2, 함북 청진 출신, 1998년 12월 탈북). 정치학습회에 자주 빠졌다는 한 탈북자는 “비판하면 어때요. 공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비판 한 번 받으면 돼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기에 정치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총화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이 형식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조직생활의 이완 정도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다. 한 평양 출신 새터민은 “나라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조직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총화, 강연회, 토요일학습, 이런 정규 조직 생활을 하루도 빠진 적도 없고, 평양시는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었다. 쌀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조직 생활 못하고는 못 산다”(P1, 평양 출신, 2003년 10월 탈북)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기에는 전반적으로 조직생활이 이완되었고, 국가와 당의 통제가 약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부터는 당과 근로단체에 대한 조직적 정비가 다시 시작되고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도 다시 강화되었다. 한 새터민은 1990년대 말 이후 조직생활의 재정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995년도에 제일 어려운 최악의 시대였잖아요? 고난의 시기라고. 그때는 조직생활도 다 느슨해졌어요.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모이면 잘 모이는 거고. 별로 통제를 못했어요. 1998년도 그때까지는. 1998년 지나서부터는 좀 그래도, 1999년도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때 또 다시 조직생활이 쪼였죠. … 그때 경제난을 겪었지만, 이거는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제난이지, 우리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주입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느슨해서 먹고 살기위해서 조직생활을 안했다가 좀 관찮아졌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젠 다시 충성을 해야 된다, 조직생활 열심히 참가해야 된다, 그런 의식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H3, 평양 출신, 2003년 11월 탈북)

정치교육 불참 뿐만 아니라 절도, 공공재산 유용 등의 생계형 일탈행위가 증가하자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시화되고, 한편으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강화되었다.

2004년에 발표된 김혜성의 단편소설 “열쇠”는 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남성의 이혼을 소재로 법적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는 공장의 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서 법적제재를 받은 남편과의 이혼문제로 갈등하는 한 여성이 화자로 등장한다.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지만 문제의 남편인 충국이 아버지는 교양을 받고 나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출발을 하고자 한다. 충국이 아버지가 과연 새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당세포비서는 “사람을 나쁘게만 보면 못쓰네. 새길에 들어선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한다. 결국 충국이 아버지는 “지금껏 나라를 위해 하지 못한 일을 이제라도 봉창하겠다고 하면서 날마다 24시간을 불도젤우에서 살았고” 그 결과 화선입당하게

된다. 입당한 충국이 아버지를 두고 당 세포비서가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범식동무뿐만아니라 신념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자기 궤도를 이탈했겠지. 그러나 영미동무도 보는것처럼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이 그들 모두의 눈을 새롭게 띄워주었소.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을 더 굳게 가졌단 말이요. 그들이 지금 자기의 일시적인 과오를 눈물로 후회하며 얼마나 분발하고있소. 우리 당은 아무리 큰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때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소. 오히려 더 귀중히 여기고 품에 안아 내세워주오.<sup>155</sup>

김길손의 “숨결을 안고 온 처녀”<sup>156</sup>에는 아버지가 과오를 범하고 건설장에 가있지만 낙천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나온다. 이 소설에서는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가정이라는 낙인으로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이 여성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성공해보려는 주인공과 대비시켜 더욱 당당하게 형상화하였다. 아버지의 과오를 자식 세대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집단주의적 연대책임을 유보시켜 집단을 살려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sup>157</sup>

이러한 소설들은 경제난 시기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생계유지를 위한 범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기에는 아노미 혹은 가치론적인 혼돈의 확산과 규범, 가치, 확고한 규칙, 삶의 정당한 방식들에 대한 방향감각 상실현

---

<sup>155</sup> 김혜성, “열쇠,” p. 75.

<sup>156</sup> 김길손, “숨결을 안고온 처녀,” 『청년문학』, 2004년 8호.

<sup>157</sup> 노귀남, “가정생활,” 『북한의 사회문화』 p. 412.

상이 발생한다.<sup>158</sup>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율 약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한 규범과 가치관의 혼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생활조건의 피폐화로 인한 것이다. 한 새터민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굶어죽었어요. 흠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법대로 안사는 사람 살아남은 거예요”라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다(K9, 함북 출신, 2000년 2월 탈북).

경제난 시기 주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일탈행위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일탈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일정 부분에서는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사회내로 재편입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 여행의 자유와 사유재산 허용이 확대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1998년 개정 헌법은 경제적 측면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등의 경제적 공간에 대한 강조, 개인 텃밭과 결과물에 대한 개인 소유 인정과 상속권의 보장, 대외무역의 주체로서 국가와 함께 사회협동단체를 추가,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 이는 사유재산의 확대와 주민 이동성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강제적인 방식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국가체제 속으로 포용한 것이다.<sup>159</sup> 이는

<sup>158</sup>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p. 27.

<sup>159</sup>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p. 68.

7·1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주민생활 속에서 아래로부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후 제도화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 3. 세대의 계승과 혁신

1990년대 초 북한 사회는 경제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89년의 평양청년학생축전 이후 서양 풍조의 유입 등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다. 1990년대 초반 북한 문학이 세대 갈등의 문제에 주목한 것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식민지 시기나 한국전쟁, 전후의 어려웠던 건설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혁명위업의 간고함을 알려주고, 40대 전후의 3세대와 20대 전후의 4세대들이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었던 1세대와 한국전쟁과 전쟁복구 시대를 이끌었던 2세대들이 살아왔던 자세로 혁명 위업을 계승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두어진 ‘예방적 조치’의 일환이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러한 ‘예방적 조치’가 목적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현실에는 아직 자기 개인을 먼저 내세우며 못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는 청년들도 없지 않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작은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사소한 요소들이 자라면 종당에는 당도, 국가도, 인민도 몰라보는 속물로 정치적 락오자로 혁명의 배신자로 돼 버리게 마련이다. 청춘 시절이 아무리 소중한고 두번 다시 없는 것이라고 해도 자기의 시대적 사명감도 모르고 깔렁깔렁 살아간다면 그러한 청춘은 열번 백번을 산다고 해도 단 한푼의 가치도 없다.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의 청춘 시절을 본받아 그들이 높이 추켜든 붉은 기를 지키기 위해 순간과 순간 날과 달을 바쳐가는 것

이 3세, 4세들이 자기의 청춘 시절을 빛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두고 바라게 되는 가장 큰 기대이며 소원이기도 하다.<sup>160</sup>

이상과 현실, 정신력과 과학기술, 주제성과 개방 그리고 북한의 고립된 환경과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등으로 표출되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립적 문제의식은 오늘날 북한이 직면한 실질적이고도 절박한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sup>161</sup> 1980년대 현실 주제의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문제들인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갈등 문제, 여성 문제, 세대간의 갈등 문제 중에서 세대간의 갈등과 계승의 문제는 1990년대 들어서 이전시기에 비해 아주 대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식도 이전과는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sup>162</sup>

1990년대에 들어서 세대 갈등의 문제는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훨씬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라고 나누어지던 것이 이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로 엄밀하게 구분되어 드러난다는 것이다.<sup>163</sup>

1990년대 초에 발표된 소설들<sup>164</sup>에 등장하는 2세대들은 전후 천리마운동 시기의 국가 건설의 과정을 4세대에게 들려줌으로써 혁명정신의 세대간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구세대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

<sup>160</sup> 김익철. “추억과 소원”. 『조선문학』, 1993년 3호. p. 58.

<sup>161</sup> 고인환. “‘거인’의 몰락과 북한 소설의 향방.” 『문학수첩』, 제1권 제3호(2003).

<sup>162</sup>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p. 289.

<sup>163</sup> 위의 책, p. 306.

<sup>164</sup> 리성덕,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선문학』, 1992년 4월호; 윤리태, “어제와 오늘,” 『조선문학』, 1991년 6월호; 강수, “언제나 그날처럼,” 『조선문학』, 1992년 6월호.



문제는 1990년대 후반의 소설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석유균의 소설 “지향”의 주인공 정구는 ‘거인’과 같은 스승의 손을 감싸 쥐고 혁명 1세대, 2세대, 3세대가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래일을 위해 피와 땀과 정력뿐 아니라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쳐”왔던 것처럼 “그들과 한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지름을 쓸” 것을 다짐한다.<sup>165</sup>

1990년대 초반의 소설에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현존 사회주의의 전반적 붕괴와 관련된 것이라면, 1990년대 후반의 소설 속에서는 시대간 혁명정신의 계승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한다. 경제난 이후 소설에 나타난 세대 갈등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난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현대적 기술의 발전 등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전자가 세대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새 세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혁신의 측면을 의미한다.

세대간 계승과 혁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의 소설들은 혁명1세대가 겪었던 일제시기 항일빨치산운동, 2세대가 겪었던 한국전쟁 이후의 전후복구과정 및 천리마운동의 경험으로부터 고난의 행군기를 살아나가는 자세를 찾고 있다. 김홍철의 “뿔강냉이”에서는 일제시기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가난과 설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뿔강냉이 이삭을 3세대가 4세대의 결혼상 위에 놓아주며 “뿔강냉이 한이삭도 달게 씹으며 시련을 이기고 사회주의를 지켜낸 오늘”을 기억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sup>166</sup> 1, 2세대에서 3세대로, 다시 4세대로 혁명정신이 계승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설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3, 4세대가 1, 2세대의 모범을 본

<sup>165</sup> 석유균, “지향,” 『조선문학』, 1999년 2호, p. 75.

<sup>166</sup> 김홍철, “뿔강냉이,” 『조선문학』, 2000년 9호.

받아 배우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부 작품에서는 혁명세대와 신 세대의 위상이 전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현철의 “삶의 향기”에서는 결혼관과 개성의 차이로 인한 부자 갈등의 상황에서 아 들이 아버지의 봉건성을 일깨우고 지도해나감으로써 갈등이 해소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2세대가 4세대에게서 배우고 의식을 교정 하는 것이다.

2003년에 발표된 김홍익의 “산 화석”에서도 “새로운 세계로 끝 없이 지향하며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세계”와 “누렇게 탈 색해버린 책들”처럼 자신이 “살아온 과거만을 상징하며 또 그 과거만 을 고집하는 낡은 세계의 유물”이 “한가마밥을 나눠 먹으며” 공존하 는 현재 북한의 상황이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소설에서 구세 대의 표상인 신주석은 “집단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제것을 아낌없이 바칠 줄 아는 자기헌신성과 집단의 일이라면 제몸도 서슴없이 내대는 투신력”을 가진 모범일꾼이다. 그는 자기집 뒷마당에 미꾸라지양식을 해서 자기 공장 사람들의 식량에 보태기는 할지언정, 현대적 기술에 는 어두워서 “발전하는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바람에 지적생장이 정 지되어 버린” 인물로 그려진다. 건재생산에 컴퓨터검사공정을 도입하 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신주석에게 신세대 기술자 리강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은 정보산업시대가 아닙니까? 선생님 앞에서 감히 이런 말 하기가 주제 넘지만 기술 특히 첨단기술을 떠나서는 단 한발자국 도 전진할수 없는 컴퓨터시대란 말입니다. 이걸 곡괭이로 흙을 찍 어내는 토공로동자도 인젠 온 폐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앉아서 사람들의 생활문제를 푼다니 어떻게 말입니까? 자금, 설비, 자재의 부족으로 기업소는 세워 두

고 부업지운영을 잘해서 당장 급한 세대들을 도와 주는 방법으로  
요? 아니면 지배인동지처럼 맨날 자기 집 재산을 들어 내다가 말  
입니까?<sup>167</sup>

이 소설에서 신주석은 “혹독한 관료주의자나 개인리기주의자”처럼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당을 받들어 일을 잘해 온 좋은 일꾼”이다. 그러한 사람이 새삼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새롭게 도래한 첨단기술시대”에 맞추어 진화, 발전해야 하는 북한의 “심각한 운명문제”와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맹경심의 “래일을 담보하라”에도 탄광의 발파기술을 둘러싸고 구세대인 아버지 석훈과 갱장이 신세대인 성민과 대립한다. 이 소설에서는 신세대인 처녀소대장 선희가 아버지와 아들간의 갈등 해소를 매개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이 소설들에서 갈등의 해결은 신세대가 구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고, 구세대가 신세대의 과학기술로 무장된 진취적 사고를 받아들이고 태도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또 다른 소설들에서는 신주석과 유사한 인물 전형이 여전히 긍정적인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눈보라는 후덥다”의 김석철 소대장은 기계톱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처녀돌격대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힘을 믿고,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앞에 맡겨진 통나무계획을 수행”하도록 대원들을 이끄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리영환의 “버드나무”에도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젊은 세대와 집단의 요구에 충실한 기성세대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신세대인 ‘나’는 개인적 지향과 포부, 재능의 가치를 몰라주는 ‘아바이’를 원망한다. 그러나 중국에는 “지금 현실을 도피해서 동면”하지 말고 “한목숨 서슴

---

<sup>167</sup> 김홍익, “산 화석,” 『조선문학』, 2003년 3호, p. 53.

없이 내뿜 심장”을 요구하는 구세대에게 감화된다.<sup>168</sup>

이와 같은 가치관의 혼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개혁개방의 압력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맞추어나가야 하나, 변화를 이루어내기에는 가진 것이 미약한,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혁명적 정신과 자력갱생의 태도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북한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난 극복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현대적 과학기술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체제 보존을 위해 1세대와 2세대가 혁명 건설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혁명정신을 꺼내들 수 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 자체가 소설 『산 화석』의 신주석처럼 “수십년동안 자기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포르말린용액 속의 말뚝망둥어”인지도 모른다.

소설 속의 구세대는 “래일을 담보하라”의 주인공들의 자기인식처럼 “찍혀야 될 아름다리 거목”인 반면, 신세대는 현대적 과학기술 지식과 진취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갖추었으나, 지난 세대가 지닌 ‘심장’이 부족한 존재이다. 이 점에서 구세대와 신세대는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다. 그러기에 최근 북한 소설에서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갈등의 문제는 소설 “래일을 담보하라”에 묘사된 다음과 같은 구절처럼 ‘고목’에 새 가치를 박고 그 가치가 새로 자라 다시 고목이 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무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구새 먹은 고목이 되고 말지. 고목을 세워 놓고 쳐다봐선 뭘하겠나? 대신에 억세고 든든한 새 가치들을 박아 주자구. 또 이렇게 자라지 않으리...<sup>169</sup>

<sup>168</sup> 리영환, “버드나무,” 『조선문학』, 2001년 2호.

<sup>169</sup> 맹경심, “래일을 담보하라,” 『청년문학』, 2003년 5호, p. 39.



# VI

## 결론



이상에서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생산, 재생산, 사회적 관계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산 영역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배급의 중단과 생산 활동 중지가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주민들은 국가적 차원의 안 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나갔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거나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자신의 연줄망을 동원하여 생활수단을 확보했다. 공공재산의 절도나 유용과 같은 위법행위도 생계유지의 방편이 되었다.

재생산 영역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의 활성화였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의 활성화는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의 시장확대조치라는 제도적 조치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다. 시장이 주민들의 생계유지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부터 주민들의 소비생활이 팽창하고 다양화되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기존의 집단주의적 의식과 규범에 '실리주의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초래했다. 시장에서의 활동을 비롯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고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를 와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 내 성별 분업의 완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 이혼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출신성분, 사회적 연줄망, 개인의 시장적응능력 등에 따라 시장과의 연계방식이 차별화되고, 그 결과 경제적 계층의 분화가 나타났다.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과 개인적으로 시장적응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상위 계층을 형성하였으며, 이들 간의 결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텔리 계층의 하향화와 함께 대다수 가구들이 여전히 경제적 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로 하층의 궁핍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장 적응에 성공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간계층 형성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과 시장질서의 확대는 사회적 통제에도 변화를 일으켜 시기에 따라 통제의 이완과 재강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정신력과 과학기술, 주체성과 개방 등 가치관의 혼재, 변화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적 조건 등을 중심으로 세대간 갈등과 계층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한마디로 시장화라는 방향성을 띄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도입이라는 경제적 변화만이 아니라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남녀관계의 변화와 같은 근대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주의적 근대체제의 계몽과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적 욕망과 차별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탈근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산물들은 시장 질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줄망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주의 구체제 아래에서 형성된 비공식적 관계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위자의 행동방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이는 경제난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도 생활세계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된다.

한편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해왔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장확대

조치, 법제 개정 등은 제도 차원에서 시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북한 사회를 유지해 왔던 원칙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양태로 진행될 것인가, 점진적인 개방과 시장질서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상호작용과 정부의 정책의지 뿐만 아니라 핵문제 등 복합적인 국제정치적 변수들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질서의 도입과 확대 자체가 북한 사회의 민주화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난 이후에 기존의 정치적 권력구조가 급진적인 내적 변화 없이, 시장과 연계된 경제적 불평등체제와 착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체제전환이 사회적 지배계층의 단절을 초래하기보다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기존 특권층의 신속한 자기변신을 통한 재집권을 가져왔던 구소련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사회와 주민생활의 변화를 남북공존과 상생을 위해 좀 더 바람직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의 변화가 경제난으로 인해 창출된 사회적 이동과 소통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접촉과 소통은 변화를 가져온다. 정치군사적 영역과는 다소 독립적으로 지역자치 단체나 주민들 간의 다차원적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북한의 ‘생활세계’가 ‘체제’의 중압감을 이겨내고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갖추어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도 개별 공장과 기업소 단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개별 공장 단위의 자구책 모색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공장들이 비생산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장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부실화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도적 대북지원의 중단은 북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개방이 아닌, 준비되지 않은 급변사태를 초래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높이깊이, 2005.
- 과학·백과사전출판사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 생활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노귀남. 『북한 문학의 사적탐구』. 깊은샘, 2006.
- 박태상. 『북한 문학의 동향』. 깊은샘, 2003.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통일연구원, 2004.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북한의 대중문화-실태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0.
- \_\_\_\_\_.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2004.
-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예술』. 역락, 2004.
- \_\_\_\_\_. 『북한의 사회와 문화』. 역락, 2005.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통일연구원, 2001.
- \_\_\_\_\_.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통일연구원, 2005.
-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4.

- Humphrey, C. *The Unmasking of Soviet Life: Everyday Economies after Socialism*.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Collinson, D. L. *Managing the shopfloor : subjectivity, masculinity and workplace culture*. New York: de Gruyter, 1992.
- James, C. V. 연희원 옮김.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도서출판 녹진, 1990.
- Easter, Gerald M. *Reconstructing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Mandel Ruth. & Caroline Humphrey(ed). *Markets & Moralities*. New York: Berg, 2002.
- Walder, A. G. *Communist Neo-Traditionalism*.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 2. 논문

- 고인환. “거인의 몰락과 북한 소설의 향방.” 『문학수첩』. 제1권 제3호, 2003.
- \_\_\_\_\_. “주체 이념과 일상적 삶의 무늬.” 『문학수첩』. 제1권 제4호, 2003.
- \_\_\_\_\_. “자의식의 투사와 첫사랑의 무늬.” 『문학수첩』. 제2권 제1호, 2004.
- \_\_\_\_\_. “낭만적 신념과 여성의 위상.” 『문학수첩』. 제2권 제3호, 2004.
- 곽해룡. “문학작품에 나타난 북한인민의 생활상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권영민.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북한의 문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김성수.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 1999.
- \_\_\_\_\_. “주체문학의 역사와 이론.” 『동서문학』. 봄호, 2000.
- \_\_\_\_\_. “북한에서의 현대소설 연구-주체사실주의 방법론.” 『현대소설연구』. 제16호, 2002.
- 김은영·김경미·홍옥화. “북한의 가족생활.” 민화협 정책위원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도서출판 오름, 2003.
- 김재용.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비판적 연구.” 『통일문화연구(하)』.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이북 문학의 흐름: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 『북한문화, 들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김정호. “7·1 경제조치와 북한사회의 변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중수. “북한의 위기 대응 전략: ‘청년중시’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5년 상반기호.
- 김창진.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노멘클라투라.’”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1997.
- 노귀남. “김정일 시대의 북한문학.” 김종희 편. 『북한 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 \_\_\_\_\_. “선군혁명문학과 김정일문학세기.” 『문학과 창작』. 67호, 2001.
- \_\_\_\_\_. “체제위기 속의 북한문학의 대응과 변화.” 『영남대학교 민족문화논총』 제29집, 2004.
- \_\_\_\_\_. “주민생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회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_\_\_\_\_. “가정생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회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_\_\_\_\_. “문학 속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관.”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2004.

-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M. 마페졸리 외 저.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1994.
-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도서출판 오름, 2003.
- 배정환. “러시아의 사회자본과 비공식 네트워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003.
- 서재진. “북한의 성분차별 정책이 시장요소 확산에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17권 2호 통권 44호, 2005.
-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오양열.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오탈호. “북한식 사랑법을 찾아서-2000년대 북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3』. 청동거울, 2004.
- 위르겐 슐름봄. “미시사-거시사.” 위르겐 슐름봄 편·백승중 외 역. 『미시사와 거시』. 궁리, 2001.
- 이미경·구수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도시 여성의 삶과 의식.”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이우영. “북한의 문화예술의 개념 및 역할.”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이봉일. “1990년대 북한 소설의 세대론에 대하여.” 김중희 편. 『북한 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 이종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론과 실제.” 『슬라브연구』. 제3권, 1987.
- 전영선. “북한의 문예이론과 창작방법론.”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 정우곤·이주철.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조성국.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고찰.” 『경민대학연구논총』. 제2권 제1호, 2001.
-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2권 1호, 2004.
- 최봉대. “북한의 속도전청년들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봄호, 2001.
- \_\_\_\_\_.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06.
- 홍 민. “북한의 공장과 노동세계: ‘아래로부터의 역사.’” 동국대학교대학원 편. 『대학원연구논집』, 2003.
-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Ledeneva, Alena. “Continuity and Change of Blat Practices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S. Lovell, Alena V. Ledeneva & A.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London: Macmillan Press Ltd., 2000.

Latham, Kevin. “Rethinking Chinese Consumption.” C. M. Mann (ed). *Postsocialism*. NY: Routledge, 2002.

Sedlenieks, Klavs. “Cash in an Envelope: Corruption and Tax Avoidance as an Economic Strategy in Contemporary Riga.” Karl-Olov Arnstberg & Thomas Borea eds.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tockholm: Södertorns hogskola, 2003.

Zhao, Litao. “From Cadre Managers to Private Entrepreneurs: Entry into Family Business in Rural China.” Kevin T. Leicht(ed). *The Future of Market Transition.* Kidlington: Elsevier Science Ltd, 2002.

Platz, Stephanie. “The Shape of National Time: Daily Life, History, and Identity during Armenia’s Transition to Independence, 1991-1994.” Daphne Berdahl, Matti Bunzl, and Martha Lampland(eds). *Altering States: Ethnographies of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률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흙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에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